

한국 천주교 소공동체와 리더십(본당 사목 구조) -교회의 새로운 길과 새 지도력-

강윤철 신부 (마산교구)

목 차

들어가며	3.1.2 지배적인 지도력과 안내하는 지도력 비교
1. 교회론과 사회 구조에 대한 성찰	3.1.3 촉진자(facilitator)
1.1 교회란 무엇인가	3.2 활기를 주는 지도력
1.2 새로운 사회의 패러다임	3.2.1 예수님과 초대 교회의 지도 양식
1.2.1 새로운 사회의 구조	3.2.2 활기를 주는 지도자의 태도
1.2.2 이루어야 할 사회 제도	3.2.3 지도력의 전환
1.3 요구되는 지도력	3.3 참여시키는 지도력
	3.3.1 함께하는 지도자
2. 교회의 새로운 길	3.3.2 참여와 공동 책임
2.1 소공동체들의 친교인 교회	
2.2 참여하는 교회	4. 새로운 지도력의 시도들
2.2.1 그리스도와의 친교와 사명에 참여	4.1 기초 공동체의 추대로 사목 협의회 구성
2.2.2 공동 책임의 동료 일꾼	4.2 가정 교리(소공동체 교리) 운영
2.2.3 평신도의 본질과 사명	4.2.1 가정 교리란
2.2.4 참여와 성장	4.2.2 취지와 성과
2.3 버려야 할 교회의 모습	4.2.3 교리 교사의 역할
3. 새로운 양식의 지도력	
3.1 안내하는 지도력 (Guiding Leadership)	나가며
3.1.1 안내자	

한국 천주교 소공동체와 리더십(본당 사목 구조)

-교회의 새로운 길과 새 지도력-

들어가며

불우 시설 기관이나 농협, 또는 잡지사 등에서 관측 내지 성금 모금을 위해 나에게 자주 전화가 온다. 며칠 전에는 인삼 공사 판매 촉진부에서 전화가 왔다. 신자라며 세례명까지 밝혔다. 한국 인삼과 중국 인삼의 차이점을 알려 주겠다며 미사 중에 기회를 달라고 하였다. 이런 종류의 전화가 왔을 때 나는 “사무실에 접수시켜 주세요. 해당 사목 위원이 처리할 것입니다”라고 대답한다. 우리 본당에서 이런 사항은 사회 복지 위원회가 검토하고 연락하는 업무이다. 이 말을 들은 상대방들은 대체로 “결국 신부님이 결정할 것 아닙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 나는 “당신 회사는 담당 계원이 검토하지 않고, 처음부터 사장이 모든 문제를 다 처리하고 결정합니까?”라고 대답한다. 그런 회사나 조직체는 없듯이 성당도 그렇다. 그렇게 하면 평신도 담당자는 허수아비가 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며 수긍한다. 이해가 된다는 것이다. 평소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처리한다고 알고 있기에 신부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주제는 ‘소공동체와 리더십’이다. 소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가의 관점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제5차 총회(1990년, 반둥)에서 제시한 ‘공동체들의 친교인 교회’에서 지도력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언급하겠다.¹⁾

1. 교회론과 사회 구조에 대한 성찰

1) 리더(leader), 리더십(leadership)을 한국말로 무엇이라 해야 하고 또 리더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가 고민되었다. leader라는 단어의 사전적 뜻은 선도자, 인도자, 안내자, 지도자, 지휘자이다. leadership의 뜻은 통솔력, 지도력이다. 신부 수녀에게는 ‘지도자’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사목회장, 구역장, 반장, 단체장 등 평신도 일꾼들에게는 ‘지도자’라는 단어로 그들의 신분과 역할을 표현하기는 맞지 않다. 봉사자라는 단어의 개념이 더 맞으며, 사실상 신부 수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신부 수녀와 평신도 일꾼들 모두를 염두에 둔 지칭으로 지도자 그리고 지도력이란 단어를 사용하겠다.

교회와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바탕 위에 교회 지도력에 대한 성찰이 가능하다. 교회는 사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으며 사회 형태와 무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회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사회 구조와 인식의 틀을 살피어 복음화를 위해 거기에 맞는 지도력을 찾아야 하겠다.

1.1 교회란 무엇인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의 헌장에서 제시한 교회론은 하느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성전이다.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 우리는 믿음과 세례로써 하느님의 백성이 된다.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을 이루도록 불린다”(교회 헌장 13항).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한 가족을 이루고 하느님의 한 백성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이다”(선교 교령 1항). 하느님의 백성 전체가 ‘사제이고 예언자이며 왕’인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에 참여하며, 거기에서 나오는 사명과 봉사의 책임을 진다.²⁾ 비록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 뚜렷한 구별이 있다 할지라도 충실한 모든 신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행위와 위엄에 비추어 그들 사이에는 진정한 동질성이 존재한다(교회 헌장 32항). 따라서 세례를 받은 신도들의 역할은 제각기 다르지만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사명과 봉사에 참여하여야 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리스도 몸인 교회 :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공의회 문헌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표현한다(교회 헌장 7항). 그리스도인들은 세례와 성만찬을 통하여 그들 자신이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의 몸이 되는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서 산다”(요한 6,56). 교회를 몸에 비유하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가를 잘 보여 준다. 교회는 단순히 그리스도 주위에 모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몸 안에서, 그분 안에 하나가 되었다.³⁾ 구성원들의 은사는 다양하고 그들 개인의 역할도 제각기 다른 것이다. 모든 역할이 저 나름대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는 데 다 같이 동등하게 영광을 갖는다. 모든 평신도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하여 교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살아있는 도구이며 증인이다.

•성령의 성전인 교회: 교회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에페 2,17 참조)이며 성령의 전당이다(1고린 3,16-17 참조). 성령께서는 교회를 “살아 계신 하느님의 성전”(2고린 6,16; 1고린 3,16-17; 에페 2,21 참조)으로 만드신다. 그리스도께 봉헌되

2)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인간의 구원자■, 18-21항; ■가톨릭 교회 교리서■, 783항.

3) ■가톨릭 교회 교리서■, 789항.

고 성령으로 도유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풍부한 열매를 맺도록 부름 받고 격려되며, 하는 모든 일들은 성령 안에서 행하며 영적 제물이 되어 미사 때에 성부께 봉헌된다(교회 헌장 34항).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성스러운 공동체 일원이 된다. 교회 공동체는 성령께서 각각의 개인에게 주신 은사들에 의해 풍요롭게 된다.

교회 현장에서 발견되는 교회의 주된 3가지 이미지는 ‘참여’와 ‘공동 책임’으로 묘사될 수 있다.⁴⁾ 이러한 개념들은 신자들이 그들의 은사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교회의 지도력과 운영에 새로운 형태를 요구한다.

1.2 새로운 사회의 패러다임

1.2.1 새로운 사회의 구조

오늘의 사회를 지칭할 때 가장 널리 사용하는 말이 정보 사회(information society)이다.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분배할 수 있는 기술이 고도화되고, 모든 분야에 자동화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보망과 통신 혁명이 새로운 정보 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다. 따라서 사회 조직의 형태로는 모든 조직과 구성원들이 서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물망 사회(network society)이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 중심과 주변, 상급자와 하급자의 구분이 흐려지고, 각 부분이 모두 상대적으로 대등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양방향 의사 소통 사회(two way communication society)가 되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양방향으로 의사 소통이 쉽게 이루어진다. 사회의 조직 원리는 지배-피지배 관계가 아닌 개별적 자율성에 바탕을 두게 되며, 위계 질서 조직보다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는 수평적, 기능적 연결 형태의 새로운 조직이 보편화 되고 있다. 정보화 사회는 다원 사회(pluralistic society)를 이루게 한다. 사회적 힘의 근원이나 사람의 생활과 행위 양식이 다양하고, 개인적 선택의 폭은 더욱 넓어진다. 중앙 집중, 조직, 표준, 능률, 성장 등에 대한 가치는 분권화, 분산화, 다원화, 자율성, 개성, 창의, 발전 등으로 바뀌고 있다. 서로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조화를 모색함으로써만 새 질서를 찾을 수 있다.

1.2.2 이루어야 할 사회 제도

4) Anselm Prior, ‘New Leadership for a New Ecclesiology’, (Lumko Institute), 6 참조.

새로운 삶의 양식과 제도에 적합하고 또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할 사회 제도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 사회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⁵⁾

•통합적 속성 : 다원 사회 속에서 다양한 가치관과 생활 모습이 전개되고 개별화 개체화로 치달을 수 있다. 그러므로 공통적인 가치관과 생활 양식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의식을 느끼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

•평등한 인간 관계: 사회가 높은 부가 가치의 기술 정보 산업 중심으로 변해가면서 전문 기술직 종사자의 구성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계급간의 차이나 성별의 차이는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불평등에 기초한 사회 제도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지되기도 어려울 것이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방식: 산업 사회는 자유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들이 중요한 전문적 기능을 담당하는 정보·그물망 사회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협조하는 가운데서만 창의력이 발휘되고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모두가 인간답게 잘 사는 길이다.

1.3 요구되는 지도력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제시하는 교회는 ‘참가와 공동 책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도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정보화 사회는 다원화, 분산화, 분권화, 개별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통합적, 평등한 인간 관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바탕을 둔 사회 제도가 되어야 한다. 이런 사회에서 갖추어야 할 지도자의 모습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것이 되어야 한다. 전 시대의 지배적이고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사고 체계와 지도 자세로는 사회를 통합할 수도, 지도할 수도 없다. 탈권위적이고 평등한 인간 관계 속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하는 지도력을 요구하고 있다. 즉 오늘날의 교회와 사회는 공히 ‘참가와 공동 책임’,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도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2. 교회의 새로운 길

우리는 나아갈 방향을 알아야 갈 수 있다. 우리 본당도 마찬가지이다.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FABC) 5차 총회에서 새로운 교회상이 제시되었다. ‘공동체들의 친교의 교회’, ‘참여하는 교회’,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인 교회’이다.

5) 배규한, ‘미래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한국 사회학■(민음사, 1996), 101~128 참조.

2.1 소공동체들의 친교인 교회

아시아 주교님들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다. “아시아의 교회는 공동체들의 친교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서는 평신도와 수도자 그리고 성직자가 서로를 형제 자매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그들은 소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이끄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준성사적 현존으로 간주되는 하느님의 말씀에 의해 함께 불리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기도하고 복음을 함께 나누며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를 이루어 서로를 지지해 주고 함께 일함으로써 그들의 매일의 삶 안에서 복음을 살아간다.”⁶⁾ 신자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그의 사명에 참여하고 주교와 사제들과 함께 공동 책임을 수행하도록 초대받았다.⁷⁾

소공동체는 삶의 터전이 같은 동네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작은 신앙 생활 공동체’이며 ‘현장 교회’이다. 신자들은 소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나눔을 하며 그들 자신이 교회라는 것을 체험하고 적극 참여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된다. 소공동체 운동은 신앙 안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운동’이며, 소공동체 생활을 통해 자기와 세상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고자 하는 ‘복음화 운동’이다. 신자들은 소공동체에서 신앙을 중심으로 함께 살아가며 복음의 빛을 서로에게 비추고 일반 생활도 돕고 산다. 그것이 증거가 되고 복음을 사회에 비추고 활동함으로써 세상을 쇠신한다. 소공동체의 봉사자는 신자들을 보살피는 ‘소공동체의 목자’이다. 소공동체 운동은 초대 교회의 모습과 한국의 교우촌과 두레 공동체의 정신과 모습을 이 시대 상황 속에서 현재화 하자는 운동이기도 하다.⁸⁾

소공동체 운동의 정신은 동네에 신앙 공동체를 건설하고 그것이 모인 것이 본당이 되고자 하는 것만은 아니다. 모든 신자들이 참여하는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2.2 참여하는 교회

2.2.1 그리스도와의 친교와 사명에 참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로 비유하셨다(마태 9,14-15 참조). 우리는 세례 성사로 그리스도에 의해 하느님 자녀들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고, 견진 성사로 공동체의 성인 구성원이

6)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제 5차 총회 최종 성명서 8.1.1.

7) AsIPA TEXT, C/4 Co-Responsible Fellow Workers not 'Helpers' 8.

8) 강윤철, ■소공동체 교본■(천주교 마산 교구 사목국, 1997), 35-36.

되었다. 성숙한 가족은 가정 전체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 사람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요한 17,18) 하시며 그의 사도요, 벗인 우리가 당신 몸의 일에 참여하도록 기대하신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데에 일역을 하도록 불림 받았다. 성체 성사 참여는 그 공동 책임을 받아들이는 행위이다.

2.2.2 공동 책임의 동료 일꾼

예수님은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모두가 당신의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라고 하셨다(루가 8,19-21 참조). 사도들과 초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가는 곳 어디에서든 예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자기 자신의 일’로 여겼다. 사실 사도들 없는 안티오키아에서는 평신도들이 교회를 건설했다(사도 4,32-35; 13,1-4 참조). 초기 교회는 형제자매 등 가족처럼 서로 느끼며, 서로를 돌보는 책임을 가졌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가족 공동체로서 그를 위해 기도했다.

성 바오로는 그의 동료를 단순히 ‘그의 협조자들’이라 부르지 않고 “동료 일꾼들” 그리고 “주님의 뽑힌 종들”이라 하였다. 초기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행하였다. 이것을 우리는 공동 책임(co-responsibility)이라 부른다.⁹⁾ 참여와 공동 책임은 우리 본당 내에서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세례 받고 견진 받은 신자들은 달란트와 성령의 선물들을 받았고, 그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다(1고린 12,4-11; 로마 12,6-8 참조). “각자가 받은 은총의 선물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남을 위해 봉사하십시오”(1베드 4,10). 서로 도와 주고 참여하고 협력할 때 비로소 교회는 살아있는 몸이 될 수 있다.

2.2.3 평신도의 본질과 사명

평신도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 공의회 문헌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사목자들은 세계 구원을 위한 교회의 사명을 독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로부터 선정된 것이 아니고, 오직 모든 신도들로 하여금 공동 사업에 일치 협력하도록 그들을 사목하고 그들의 봉사와 은사를 인정...”(교회 헌장 30항) 해야 한다. “평신도는 곧 세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하느님 백성으로 구성되고,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자직과 왕직에 자기 나름대로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 그리스도교 백성 전체의 사명 가운데에서 자기 몫을 교회와 세상 안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한

9) AsIPA TEXT, C/4, 5 참조.

다”(교회 헌장 31항). “교회 안에서 모든 이가 똑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남을 위하여 교사나 신비 관리자나 목자로 세워졌지만,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통된 품위와 활동에서는 참으로 모두 평등하다. 주님께서 거룩한 교역자들과 나머지 하느님 백성을 구별하셨지만 그 구별은 동시에 결합을 가져 온다”(교회 헌장 32항).

평신도는 그리스도의 일반 사명을 공동으로 책임지며 함께 하는 일꾼들이다. “교회의 새로운 길은 성령의 선물이 모든 신자들-평신도, 수도자, 성직자-에게 똑같이 주어졌음을 인식하고 그것으로 함께 활동하는 참여하는 교회이다. 그리하여 교회가 성장하고 선교가 실현된다.”¹⁰⁾

2.2.4 참여와 성장

소공동체는 이웃 안에서 그리스도 사명에 참여하고, 위원회들과 단체들은 본당 내부의 생활에 참여한다. 다른 이들은 본당 외부의 세계에 대해 교회의 일반 사명을 수행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파견되었다(루가 10,1-9 참조). 공동체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달란트를 사용하는 몇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참여하여 우리 모두가 각자의 달란트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다.¹¹⁾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전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생활과 책임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다. 모두가 사목회에 들어갈 수는 없다. 모두가 성가대에 들어갈 수 없고, 모두가 교리 교사로 직접 가르치지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모두가 그 직분에 대해 함께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모두가 병자 방문에 나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일에 동참한다는 느낌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¹²⁾

2.3 버려야 할 교회의 모습

• 지배적이고 독단적인 지도력은 사라져야 한다. 한국 교회는 사제 의존도가 너무 높다. 지배적이며 독단적으로 본당 일을 처리하는 모습은 이제 사제나 수녀나 어떤 간부에게서도 사라져야 한다. “당신들은 잘 모른다. 당신들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내가 당신이 할 일을 말해 줄 테니, 그대로 행하시오” 등의 말은 없어져야 하겠다.

10)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제 5차 총회 최종 성명서 8.1.2.

11) 천주교 서울 대교구, ■참여하는 교회■(천주교 서울 대교구 2000년대 복음화 사무국, 1998), 28-39 참조.

12) F. 로빙거,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그 지도자들■(2000년대 복음화 사무국, 1994), 31-32.

•수동적인 수혜자의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평신도들은 사제가 모든 것을 먼저 시작해 주기를 그리고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기를 기다린다. 사목 지도자들은 신자들을 위해 자기가 모든 것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잘못이다.

•신자들이 개별적으로 있는 본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은 주일에 교회에 가지만 그들은 개별적으로 있으면서 다른 신자들과는 어떤 연대도 없다. 이런 교회에는 소속감과 신자들 간에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 따라서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고, 서로 간의 나눔과 섬김 속에서 하느님을 체험하지 못한다.

•신자들이 사제의 단순한 협력자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처럼 평신도는 성직자의 연장된 팔로서의 심부름꾼 역할만 해서는 안 된다.

•일부 신자만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 위원회와 단체에서 바쁘게 활동하고 있는 신자들은 전체 신자의 10% 미만이었다. 이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있는 성령의 선물과 달란트를 10%만 사용했다는 말이다. 이제 소공동체가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수동적이고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3. 새로운 양식의 지도력

교회의 새로운 길에 적합한 지도 양식은 용기와 영감과 힘을 주고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지도력이어야 한다. 어떤 양식의 지도력이 그런 것인가? 아시파¹³⁾와 룬꼬 연구소¹⁴⁾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제시하고자 한다.¹⁵⁾

3.1 안내하는 지도력(Guiding Leadership)

3.1.1 안내자

13) AsIPA Desk, FABC : 아시아 주교회의 산하 평신도 위원회 소속으로 소공동체 운동을 주관하고 교재를 발간한다. AsIPA는 Asian Integral Pastoral Approach의 약자이다.

14) LUMKO INSTITUTE :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남부 아프리카 사목 연구소. 1950년에 시작하여 선교학, 교리 교수법, 토착화, 소공동체 등에 대해 연구하고 교재를 발간하며 아프리카 전역과 세계 교회를 대상으로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소공동체에 대한 연구 성과가 크고 많은 교재를 발간하였다.

15) 룬꼬 연구소와 아시파 교재는 사실상 차이가 별로 없다. 룬꼬에서 연구하고 제시한 내용을 아시파는 아시아라는 지역적 특성에 맞게 재적용하고 또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자료들을 제공받아 재가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공동체들의 친교의 교회’, ‘참여하는 교회’는 함께하며 안내하는 지도력을 요구한다. 떠먹이며 주입하고 힘으로 이끌어 가기보다 스스로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지도자의 모습이어야 한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자.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다투고 잘못된 생각을 할 때도 즉시 지적하지 않고, 집에 갈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야 부르셨다. 야단치거나 비난하지 않고, 어른처럼 존중해 주셨다. 질문을 던져 자기 스스로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 주셨다(마르 9,33-37 참조). 교훈적인 말이나 새로운 안목을 주입하지 않고 스스로 깨닫도록 하셨다. 예수께서 보여 주신 지도력은 함께 하며 안내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격려하는 지도력이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벗이라 부르신다. 이것은 당신이 주님임에도 그들을 동등하게 대하신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때때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대화와 빵을 나누면서 일치로 이루셨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여행하면서, 생활의 예를 사용하면서, 그들의 질문을 존중하면서 가르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안내자이시다. 제자들에게 섬김의 모범을 보여 주시며 안내하는 지도력을 가지라고 당부하셨다. 주교, 신부, 수녀, 본당 회장, 간부, 교리 교사 등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은 안내하는 지도력을 받아들여야 한다. 지배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은 지도자들에게 어려움을 느끼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도전이다.

3.1.2 지배적인 지도력과 안내하는 지도력 비교¹⁶⁾

16) AsIPA TEXT, B/7 GUIDING LEADERSHIP; ■복음화 지도자 학교 강습 교안집■(오스왈드 파일, 서울 대교구 엮음), 작업지 28,3 참조.

지배적인 지도력	안내하는 지도력
<p>제공함으로써 봉사한다. 손가락으로 떠먹인다. 내가 그들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 내가 그들에게 말해 주어야 한다. 그들은 아는 것이 없다. 내가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한다. 나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한다. 나는 신학을 공부했다. 내가 사람을 선정한다. 내가 내 백성들을 알기에 이것이 여러분을 위해 좋은 것이다. 토론은 시간 낭비다. 내가 결정한다. 나는 그들을 믿을 수 없다. 나는 나의 일을 위해 협조자가 필요하다. 비판하지 마라. 어떻게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나? 내가 본당 신부인데(수녀인데).</p>	<p>나는 사람들이 성장하기를 원한다. 그들 스스로 보도록 도와 준다. 방향을 제시한다. 영감을 준다. 사람들이 격려 받고 활기 있기를 원한다. 어떤 실망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사람들을 믿는다. 사람들의 재능을 발견하기를 좋아한다. 사람들을 훈련한다. 나의 책임을 나눈다. 귀 기울인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결정한다.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 우리는 공동 사명이 있다. 마음이 아파도 비판을 받아 준다. 나는 평신도를 형제자매로 받아들인다. 나는 사람들을 존중한다. “당신들 스스로 결정하십시오.”</p>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3.1.3 촉진자(facilitator)

격려하고 대화와 나눔을 촉진시켜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아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는 기쁨을 얻도록 돕는 사람들을 촉진자라고 부른다. 공동체 각 사람의 지혜와 가능성에 신뢰를 가지고, 질문으로 자신들의 지혜를 끄집어내도록 유도하고, 사람들이 공동체에 관여하도록 동기를 유발시킨다. 사람들의 체험과 지식을 나누고 서로에게서 배우도록 도우며, 진리를 발견하는 과정에 참가자들을 참여시킨다.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와 참여자가 모두 서로 묻고 토론하며 답을 함께 찾아가는 참여적인 교육 방법으로 사람들이 깨닫도록 돕는다. 강의식 교육 방법의 강점은 정보와 지식을 발표하는 데는 효과적이거나 참가자들 자신의 지식이 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참여적인 교육 방법은 자신의 지식과 가능성 안에서 성장하여 멀리 가도록 그들을 돕는다.¹⁷⁾

17) Brigd-Rose Tiernan, snd and Joe Ensing, msc, ■LEADERSHIP FOR GROWTH■(S.Africa, Lumko Institute, 2000), 20-29.; Estela Padilla & Anselm Prior, ■RAISING AWARENESS■

예수님은 촉진자의 모델이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길을 가시며, 질문하고 듣고 또 말씀하시고 성서를 설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머무시며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다(루가 24,13-35 참조). 예수님은 자주 촉진자 스타일의 지도력을 행사하셨다. 그분은 진리를 사람들이 스스로 발견하기를 원하셨다. 예를 들면, 그분은 이야기, 속담, 비유로 말씀하였고 청중들이 스스로 그 뜻을 알아내도록 하셨다. 예수님은 당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 직면하고 바로 잡아 주실 때도 비유나 질문을 사용하셨다(루가 10,25-37).

안내하는 지도자는 방향을 제시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가도록 촉진하며 도와주고, 공동체에 혼과 기운을 불어 넣어 활력을 주는 자이다. 복음 나누기의 예를 들면, 진행자는 그룹의 구성원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그는 참석자들을 어른으로 대하면서,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도와 준다. 진행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도록 기회와 용기를 주고, 복음 구절을 안내하고 다른 사람이 읽도록 한다. 나눔을 할 때도 그가 먼저 하지 않는다. 예비 신자 평신도 교리 교사도 많이 있어서 가르치는 지도자가 아니라 먼저 전해 받았고 깨달은 자로서 함께 구원의 여정을 가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3.2 활기를 주는 지도력

3.2.1 예수님과 초대 교회의 지도 양식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시고 따라 하라고 당부하셨다(요한 13,1-17 참조). 그리고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다(마르 9,33-37 참조). 섬기는 지도자가 되라는 말씀이다. 어느 목사님은 자신을 “저는 A교회를 섬기는 김 목사입니다” 라고 소개하였다. 매우 인상적인 말이었다. 예수님은 당신의 복음 선포에 제자들을 참여시키고 필요한 수련과 실습을 충분히 시키시고, 제자들의 성공에 함께 기쁨을 나누셨다(루가 10,1-21 참조). 그분은 당신의 권위를 제자들과 나누셨으며, 이방인 여인의 지적을 받아들이셨다(마태 15,21-28 참조). 그분의 지도력은 모범을 보이고 참여시키고 격려하며 활기를 주는 것이었다.

초대 교회에서는 지배하려 하지 않고(1베드 5,3 참조), 함께 일하고(2고린 1,24 참조), 공동체 전체가 선교사들을 파견하고(사도 13,3 참조), 지도자를 지적하는

(S.Africa, Lumko Institute, 1997), 36-45 참조.

일이 허용되었다(갈라 2,11 참조). 지도자는 원로들과 토론한 다음 결정하였고(사도 15,6-7 참조), 지도자 선출에는 공동체가 참여하였다(사도 1,15-26 참조). 초대 교회는 교회 직무를 철저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지배와 통치가 아닌 '섬김' 혹은 '봉사'로 이해하였다.¹⁸⁾

3.2.2 활기를 주는 지도자의 태도¹⁹⁾

- ① 사람들에게 활기를 주고 적극적으로 되도록 돕는다.
- ② 사람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밀어 주고 도와 준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거나 실패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기를 좋아한다.
- ③ 사람들을 신뢰한다. 가장 미소한 사람들 안에도 특은과 자질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 ④ 다른 사람들이 더 큰 능력들을 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 ⑤ 팀을 이루어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팀 구성원들이 가능한 한 동등하기를 바란다.
- ⑥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주어, 그들이 동등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사고를 개발하기를 바란다.
- ⑦ 사람들이 자유롭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의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 ⑧ 모든 것을 자기가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제안을 인정해 주고 공동체가 출선해서 일하기를 원한다.
- ⑨ 사람들 스스로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발견하기를 원한다.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발견하도록 도와 준다.
- ⑩ 가능한 한 다른 사람을 키워 준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제안한 방법이나 의견을 억제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 ⑪ 자기만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동체가 자체의 지도자를 제안해서, 자기가 없어도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
- ⑫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거나 군림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사람들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 ⑬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때 내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과 균형을 이룰

18) 차동엽, ■공동체사목 기초■(서울, 가톨릭출판사, 2001), 257-260 참조.

19) AsIPA TEXT, B/8 ATTITUDES OF A GUIDING LEADER.

필요가 있을 때에만 저지시킨다.

3.2.3 지도력의 전환

본당의 변화를 원한다면, 나 자신이 변화되어 다음과 같은 지도력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²⁰⁾

지배하고 위압하는 지도력	활기를 불어 넣는 지도력
지도자가 모든 결정을 하며 그의 아이디어를 완성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결정을 하도록 유도한다. 일이 미완성이라도 사람들의 일치를 위해 노력한다.
특별한 의자(자리)에 앉는다.	다른 일반 사람들처럼 사람들과 함께 앉는다.
지도자가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듣는다.	쌍방향 의사소통이다. 모든 사람의 기여를 격려하며 최소한의 방향만을 제시한다.
사람들의 의견은 중요치 않으며 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비록 더 좋은 의견이 있더라도, 사람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신중하게 듣는다.
지도자가 제시하는 대부분의 의견은 실패에 대한 비판과 충고, 수정 지시이다.	지도자의 말은 좋은 점들을 칭찬하는 것이며, 실수들로부터 배우도록 하는 격려이다.
지도자를 비판하는 것은 금지된 행위이다.	지도자에 대한 비판은 항상 용인된다.
지도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사람들은 몰라서 항상 지도자로부터 들어야만 한다.	지도자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더 좋은 정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방적 학습 방식: 지도자가 가르치고, 사람들은 배운다.	지도자는 배우는 과정을 함께 촉진한다.
사람들에 대한 지도자의 기대치가 거의 비현실적이다: 빠른 결과를 기대하며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 쉽게 포기하며 비난한다.	기대치가 보다 현실적이다: 사람들이 힘을 합쳐 이끌어낸 모든 것에 대해 만족한다. 결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행동은 계획되지 않은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계획을 수립한다.
모든 중요한 것과 공로는 지도자의 것이다.	모든 공로가 구성원들에게 돌려진다.

이 외에도 ‘가르침’에서 ‘공동 연구와 배움’의 태도로, 사람에 대한 ‘불신’에서 ‘신뢰’로, ‘효율 우선’에서 ‘참가 우선’으로, ‘비계획적’인 행위에서 규칙적이고 시스템적으로 ‘계획된’ 행위로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지도자를 확

20) AsIPA TEXT, D/9 「LEADERSHIP IN NEW WAY OF BEING CHURCH」 참조.

보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지명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 본당에서 쉽게 사제가 구역장, 반장, 단체장을 임명하고 있다. 어떤 일에 적합하여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람을 선출하고 임명하는, 떠오름과 선출과 임명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다.²¹⁾ 이런 봉사자는 사람들로 부터 협력을 얻고 사제로부터 힘을 얻어 주어진 일을 훌륭히 수행하게 될 것이다.

3.3 참여시키는 지도력

3.3.1 함께 하는 지도자

지도란 공동 이익을 위해 각자 받은 은사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역할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모두를 참여시키는 지도력을 가져야 한다. 본당 생활과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켜 함께 공동 책임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 혼자서 일을 처리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을 참여시켜 그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고 함께 결정하는 지도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복음 나누기를 하든 다른 것을 하든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모습이어야 한다. 복음 나누기를 할 때 진행자가 앞서 또는 제일 뒤에 발표하거나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이며 주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교리 수업도 주입식 대중 강연식 방법이 아니라 참가자와 함께 탐구해 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각종 위원회에서도 위원장이 혼자서 계획하고 실천하기보다 위원들이 하도록 기회를 주고 일거리를 창출하여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많은 신자들을 참여시켜 신자들이 많은 역할을 맡게 될 때 그 지도자는 많은 사명을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가진 많은 달란트를 사용하여 훌륭히 수행할 수 있게 된다.

3.3.2 참여와 공동 책임

전에 비해 평신도들의 교회 참여도가 높아졌다. 사목 위원이 되어도 이름만 걸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사목 협의회 각 위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으며, 또 나름대로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제 역할을 다할 때 가능하다. 참여한다는 것은 나의 일로 여긴다는 것이다. 참여를 통하여 '공동체의 동일화'가 증대된다.²²⁾ 참여는 함께 생각하여 공동으로 결정하고 공동으로 추진하

21) Estela P. Padilla, 'THE GROWTH OF PARTICIPATION AS A WAY OF LIFE IN THE PARISH OF ST. JOSEPH, LAS PINAS'(마닐라, 1997), 206-208 참조.

게 한다.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도 공동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직자의 열성과 의견, 그리고 능력만으로 좋은 본당이 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성직자와 일반 신자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공동 책임을 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참여하고 공동 책임으로 추진할 때 일이 성취될 수 있다. 책임이 주어진 사람에게 권한 또한 주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신자들이 교회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성직자나 수도자가 다 결정하고 처리하여 신자들의 참여를 아예 원천 봉쇄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사목자는 신자들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며 신자들의 기를 죽이지 말아야 한다. 위로와 칭찬으로 활기를 심어 주며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회를 열어놓아야 한다.

교회의 새로운 길에 있는 새 지도자의 모습은 위에서 제시한 내용 외에도 다음의 역할을 제안할 수 있다. 방향 제시자(navigator)로서 본당이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동기 유발자(motivator)가 되어 사람들이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형성자(formator)로 신자들을 훈련하고 교육하여 의식을 형성해 가야 하고, 조정자(coordinator)가 되어 공동체의 이런 저런 일들을 조정하고 주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구원의 여정에서 신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지지해 주며 동행하는 동반자(Partner)이어야 한다.²²⁾

4. 새로운 지도력의 시도들

4.1 기초 공동체의 추대로 사목 협의회 구성

사목 협의회를 구성하는 절차는 대부분의 본당에서 대체로 다음과 같다. 먼저 사목 회장을 사목 협의회 총회에서 선출하거나 본당 신부가 지명하여 임명한다. 회장이 회장단을 구성하고, 각 위원장(부장)을 추천하여 인준 받고, 위원장이 같이 일할 위원들을 구성한다. 즉 위에서부터 아래로 정해진다. 윗자리의 직책자부터 정해지고 그 사람이 다음 직책자를 추천 또는 선임하여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음동 본당에서는 반대로 구성해 갔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구성하였다. 우선 12개 구역에서 자기 구역에서 본당 사목 협의회에 참여할 사람을 추대하였다. 총 11개 위원회 중 적어도 5개 위원회에서 일할 사람을 추대하게 하였다. 그리고 현 위원장이 추천하고 본당 신부가 위촉한 사람들과 관련 단체장은

22) 차동엽, 위의 책 270-274 참조.

23) Estela P. Padilla, 위의 논문 232-246 참조.

당연직이 되어 각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먼저 각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 위원들이 자기들의 일을 주선하고 주도할 위원장을 선출하고 본당 신부의 인준을 받았다. 위원회 안에서 업무를 분야별로 나누어 분과를 두는데 분과장의 선출도 같은 절차로 이루어졌다. 사목회장은 각 위원회 위원 전원과 구역장, 반장, 단체장들이 모인 사목 협의회 총회에서 선출하였다. 그리고 본당 신부의 인준 절차를 거쳐 임명되었다.

이렇게 소공동체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사목회를 구성함으로써 사목회와 소공동체가 긴밀하게 연결되었고, 위원장과 위원들은 힘을 얻어 활동할 수 있었다. 즉 대중 신자들로부터 주어지는 힘과 임명한 본당 신부로부터의 힘이 함께 주어진 것이다. 위에서부터 지명된 것이 아니고 신자들로부터, 특히 자신이 속한 소공동체로부터 추대되고 파견되었기에 위원회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

회장단과 위원장들 회의(상임위원회)를 월 1회 개최하고 그 다음 주일에 각 위원회별 회의를 갖고 있다. 상임 위원회에서는 본당의 전반적인 생활과 사명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고 결정한다. 각 위원회에서는 해당 위원회 업무에 대해 논의하고 분과별 또는 공동 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전에는 비록 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들이 있더라도 통상 위원장이 혼자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럴 경우 아이디어가 빈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부대껴서 지치기가 일쑤이다. 아직은 힘이 없는 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차츰 그 역할이 활발해 지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어떤 위원회는 공동 활동으로 열심히 그리고 힘 있게 자기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

4.2 가정 교리(소공동체 교리) 운영

4.2.1 가정 교리란

예비 신자 교리를 성당에서 대중을 상대로 신부나 수녀가 하지 않고, 소공동체별로 가정에서 평신도 교리 교사가 하는 것을 말한다. 각 교리반은 예비 신자 3-5명 정도의 소수로 구성된다. 교리반 구성은 구역별 혹은 반별로 하고 교리 교사는 그 구역 혹은 반에 속한 사람으로 정한다. 교육을 하는 장소는 성당이 아니고 가정에서 한다. 이미 여러 본당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가음동 본당에서는 2003년도에 일정 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양성하여 30명의 평신도 교리 교사로 가정 교리를 시작하였다. 주1회 평신도 교리 교사가 교육하고 신부와 수녀가 월1회 교리를 종합하여 강의한다. 어려움도 있지만 좋은 성과를 보이

고 있다.

4.2.2 취지와 성과

•예언자직 수행으로 교회 활동에 참여 의식을 높인다. 평신도 교리 교사 뿐 아니라 소공동체의 동네 신자들이 예비 신자 교육에 일정 부분 참여하게 된다. 교리반을 구역 혹은 반별로 구성하고 교리 교사도 그 구역에서 나오고, 동네 신자들이 각종 보살핌과 대부모 주선 등 세례 준비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영세 전후의 보살핌과 인도를 소공동체가 하는 것이 쉽고 효율적이다. 예비 신자는 소공동체의 뜻과 같은 존재임을 볼 수 있었다. 마치 가정에 아이가 탄생하면 집안의 뜻이 되어 온 가족들의 관심과 보살핌과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과 같다.

•신앙 생활 교육이 될 수 있다. 신앙이 생기는 것은 신앙 지식 터득으로써만이 아니고 생활로써 전염되는 것이고 생활로써 익숙해져야 자란다. 실제 생활하는 동네에서 소수 단위로 교리 공부를 함으로써 교리 지식 전달에 끝나지 않고 생생한 신앙 생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 배운 교리가 생활화 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며 신앙이 자라도록 도와줄 수 있다.²⁴⁾

•소속감과 유대감을 갖게 되고 탈락자가 적다. 교육 받는 동안 동네 소공동체 신자들의 관심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비 신자 시절부터 소공동체에서 신자들과의 친교를 이루고 또한 교리 교사와 예비 신자 사이에 일체감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예비 신자들의 생활 환경 등 정도에 맞게 눈높이 교리를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교리 시간 조절도 용이하기에 세례 성공률이 전에 비해 높다(65%→85%).

•냉담자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새 영세자들이 1년 내에 거의 반 정도가 냉담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가정 교리를 통해 영세 전부터 소공동체에 속하고 보살핌을 받게 되므로 냉담이 방지된다. 처음이라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가정 교리를 통해 세례 받은 새 신자들의 지속적인 신앙 생활률이 전에 비해 높다(50%→80%).

가정 교리 제도의 단점도 발견된다. 예비 신자들이 성당에 올 기회가 많지 않고 성직자와 수도자와 만날 기회도 적다. 평신도 교리 교사가 교리 지식이 부족하여 교리 전달이 명확하지 못하거나, 권위를 얻기 어려워 예비 신자들이 가르침에 대해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4.2.3 교리 교사의 역할

24) 강윤철, ■선교 길잡이■(천주교 마산교구 사목국, 2000), 17-18 참조.

교리 교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가르치는 선생이나 지도자가 아니라 비 지배적인 지도자로서 함께 공부하며 예비 신자들을 인도하는 사람이다. 교리 교사는 질문하고, 토론을 유도하고 수강자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도와 준다. 교리 교사는 보충하여 정리하여 준다. 많은 것보다 기본 교리를 정확하게 알게 한다. 예비 신자들이 교리 교사 정도의 신앙 지식과 신앙심을 갖게 되어도 신자로서 첫 걸음을 시작하는 데 충분하다. 교리 교사는 신앙의 선배로서 신앙 여정에서 함께 주님을 찾고 함께 주님을 향해 가도록 안내하고 격려하고 활기를 주는 사람이다.

4.2.4 소공동체의 보살핌

소공동체는 자기 반에 속한 예비 신자들을 잘 보살펴야 한다. 교리가 시작되면 소공동체에서 초대하여 축하 모임을 가져야 하고, 예비 신자들이 소공동체 모임에 계속 참석하도록 안내한다. 자주 방문하여 격려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해 준다. 주일 미사와 교리반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며 인간 관계를 유지한다. 소공동체에서 대부모를 주선한다.

세례 성사 후 간단한 축하 모임을 갖는다. 소공동체 생활에 적극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준다. 실제로 신앙 생활을 하는 생활 교리를 보충해 주고, 주일 미사 참석과 기도 생활을 확인하여 격려한다. 방문과 전화 등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여 준다. 견진 성사를 받을 때까지 교회 생활 전반에 동반하며 지속적으로 보살핀다.

5. 새 지도력을 위한 제안

5.1 지도력 나눔과 분산

지도력은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각 구성원의 능력을 잘 동원하게 하는 것”이며, “공동체가 성장토록 유도하는 직무”이다.²⁵⁾ 지도력은 교회 생활과 임무 수행을 움직이는 구조이다. 과거 교회의 지도력은 단 한 사람, 즉 사제의 소유로 나타났다. 사제는 신앙 공동체의 유일한 지도자로 생각되고 선생님, 치유자, 상담가, 행정가, 재정 책임자, 전례 주관자이다. 지도력이 한 개인에 머무는 것으로 간주 되면 권한 또한 지도자 한 사람에게 머무는 것이 된다.

•지도력과 업무 나눔: 교회의 비전이 ‘소공동체들의 공동체’와 ‘참여하는 교회’라면 지도력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 발휘되어야 한다. 참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사제가 교회의 지도력을 다른 이들과 나누어야 한다. 사목 회의 위원회들과 본당

25) Evelyn Eaton Whitehead, ■Leadership and Power: A View from the Social Sciences■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1987), 49(Estela P. Padilla 논문 218쪽).

수녀와 구역장과 단체장들과 나누어야 한다. 지도력을 나누는 것은 성직자가 평신도와 나누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평신도들끼리도 서로 나누는 것도 의미한다. 다양한 업무나 책임이 가급적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지도력의 분산을 피하여야 하겠다. 지도력 나눔의 한 형태로 팀 활동(team work)과 팀 지도력(team leadership)을 들 수 있으며 그 성과와 효율성은 크다고 본다.

•결정 기능 분산과 권한 나눔: 지도력을 나누는 것은 타인의 역량과 재능을 깊이 신뢰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한 사람이 완벽할 수 없다는 것과 한 사람만의 재능이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지도력 분산과 나눔은 결정 기능도 또한 분산되고 나누게 된다. 각 위원회 등에 결정 기능을 증가시켜야 한다. 지도력의 나눔에는 권한의 나눔이 따라야 한다. 힘은 성직자의 중재에 의해 천국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공동체에 흘러 들어오는 것이다. 권한의 나눔은 각자가 공동체의 생명을 위해 서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당 사목 협의회는 본당 사제와 높은 수준에서 역할과 권한을 나누고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일인 일 직책 갖기: 현재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직책을 담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맡길 만한 책임자를 구하기 어려워 한 사람이 중복된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다. 또 간부는 아니더라도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따라서 자기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렵고 지친다. 가급적 많은 평신도가 교회의 생명과 사명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일인 일 직책' 갖기를 하여야 하겠다. 가음동 본당에서 2003년 사목 세미나를 통해 결정된 사항 중 하나이다. 현재 추진 중이나 과도기적 문제점이 발견되어 속도와 정도를 조절하고 있다.

5.2 참여의 장과 위원회 강화

사목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은 신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과 기회를 많이 마련해야 한다. 가능한 한 모든 신자들이 본당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선해야 한다.

•자기 소공동체에 우선적 참여: 모든 신자들은 자기 동네의 소공동체에 우선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소공동체는 유대와 참여와 봉사의 장이며, 기회이다. 소공동체에서 서로를 위해 또 자기 공동체와 동네, 그리고 본당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소공동체가 제대로 될 때 자율적인 교회, 참여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유가 있고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단체에도 참여하여 특색 있는 활동으로 서로와 본당을 풍요롭게 해야 한다.

•사목회 각 위원회별 활동의 강화: 혼자서 봉사하기보다 팀으로 일해야 한다. 본당의 생활과 사명의 각 분야는 사목회 각 위원회가 나누어 분담하고 있다. 선

교, 냉담자 사목, 신자 교육, 전례, 청소년 사목, 사회 복지 등 여러 위원회별 활동이 잘 되도록 사목적 배려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회 행사와 건물 관리, 재정 관리 분야 위원회에도 여러 사람이 참여하고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분야에 신자들이 성직자보다 지식과 경험이 월등히 나올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교회의 풍요로움을 위해서는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지닌 신자들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많은 신자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위원회에 참여하여 자기 몸인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고 키우는 데 기여하고 보람과 기쁨을 얻어야 한다.

•평신도 예비 신자 교리 교사: 평신도가 예비 신자 교리 교사 등의 예언직에도 깊이 참여하여야 한다. 가르치기 위해 공부하면서 자기 쇄신을 이루어야 하며, 모범을 보이며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갈 것이다. 교리와 신앙심 면에서 질 높은 평신도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면 그들을 통해 교회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본당 전체가 성숙되어 갈 것이다.

5.3 많은 직책을 소공동체에 위임

많은 직책을 소공동체와 구역 안에서 나누어 일을 분담하여야 한다. 오늘날은 분권화 시대이다. 반장 혼자서 다 활동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선교, 병자 방문 등 각종 활동을 반장이 다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반장은 발로 뛰는 사람으로 이해하여 연말이 되면 신발을 반장에게 선물하기도 한다. 반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니 반장이 많은 일을 해야 한다지만 바람직한 소공동체의 모습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그런 반장이 좋은 지도자는 아니다. 많은 사람을 활동에 참여시켜야 한다. 활동을 분담하고, 함께 일하도록 준비하고 주선하고 격려하는 반장이 잘 하는 것이다. 술선수범이 좋은 덕목인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또 경우에 따라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더 좋은 덕목은 많은 사람을 참여시켜 함께 하도록 해 주는 지도자가 더 잘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소공동체 안에서 많은 직책을 두고 나누어서 봉사해야 한다. 레지오 마리아는 1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안에 4간부가 있다. 보통 10-15가족으로 구성된 소공동체에 반장과 총무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역에도 구역장 혼자 있는 경우가 많다. 봉사자 직책을 늘려야 한다. 구역 안에 부구역장 총무, 서기, 회계, 봉사 부장, 선교 부장, 교육 부장, 청소년 부장 등, 본당 사목회와 같은 직책을 두어 신자들이 그 일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반에도 가능하면 여러 직책을 두어 그들이 모여 구역 차원에서 각 분야의 일을 찾아 기획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이 모이면 바로 본당 사목회의 각 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나가며

변화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단체들은 지금까지 신부가 나서서 일들을 잘 처리해 주었는데, 이제 스스로 하는 것이 좋다니 당황해 하기도 한다. 심지어 신부가 관심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섭섭해 한다. 본당 수녀들도 마찬가지로 어리둥절해 한다. 지금까지 공동체나 단체들을 일일이 챙겨 주고 먹여 주며 지도하고 보살펴 왔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 한다. 모두가 새로운 지도력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해 가야 하겠고, 스스로 하는 자율성을 강조하는 정도도 속도 조절이 있어야 하겠다.

새 지도력은 많은 신자들을 봉사직에 참여시키는 것이지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시간이 없어 참여가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인 점은 두터라도, 봉사하다가 오히려 자기 신앙에 해를 입고 심지어는 교회와 멀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는 교회 상식에 미치지 못하는 발언을 당당하게 하여 답답한 경우도 있다. 참여와 함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평신도의 질적 향상의 저변 확대와 봉사자의 자질이 높아져야 한다. 그 때 참여의 기회와 봉사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교회 쇄신은 평신도가 교회에 깊이 참여할 때 가능한 것은 분명하나 자질 향상이 동반되어야 한다.

제안한 세 가지 지도력은 서로가 무관하지 않다. 지배적이고 통치적이며 먹여 주는 지도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촉진하고 안내하는 지도력은 활기를 주고, 사람들을 공동체와 봉사직에 많이 참여시키게 한다. 이 세 가지 지도력은 하나의 다른 면으로 하나의 지도력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즉 섬김의 지도력이다. 섬김은 곧 봉사며 안내하는 것이며 활기를 주는 것이다. 섬길 때 모두가 참여하게 된다. 이런 새로운 지도력은 본당의 생활과 사명 수행에서 교회의 새로운 길을 창조할 것이다.

한국 천주교 소공동체와 리더십(본당 사목 구조)

‘교회의 새로운 길과 새 지도력’에 대한 논찬

윤일순 수녀(거룩한 말씀의 회)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의 현실에서 새로운 지도력은 교회와 개인을 살리는 시대의 요구이다. 이런 절심함에서 좋은 논문을 발표해 주신 신부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본 논문은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제5차 총회의 결정된 사항을 중점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상보적으로 이해하고자 제안하고 있다. 제가 이해한 바대로 강윤철 신부님의 논문의 요지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교회론과 사회 구조에 대한 성찰 안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하느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그리스도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성령의 성전으로서의 교회를 제시하고 있다. 오늘의 사회의 구조는 정보 사회, 그물망 사회, 의사소통의 사회로, 이에 이루어야 할 사회 제도로는 통합적 속성, 평등한 인간 관계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방식의 모색이다. 여기에 요구되는 교회의 지도력으로는 참가와 공동 책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탈권위주의적이고 평등한 인간 관계 속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하는 지도력이다.

2. 교회의 새로운 길에서 소공동체는 작은 신앙 생활 공동체이며 현장 교회이다. 이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운동’이며, 소공동체 생활을 통해 자기와 세상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고자 하는 ‘복음화 운동’으로 모든 신자들이 참여하는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교회를 이루고자 한다. 또한 참여하는 교회로 그리스도와의 친교와 사명에 참여하고, 공동책임의 동료 일꾼으로, 평신도의 본질과 사명 안에서 참여로 함께 성장할 수 있다. 버려야 할 교회의 모습으로 지배적이고 독단적인 지도력, 수동적이고 수혜자의 자세, 신자들이 개별적으로 있는 모습, 신자들이 사제의 단순한 협력자라는 인식 그리고 일부 신자만 참여하는 것이다.

3. 새로운 양식의 지도력에서 아시아에서 제시하는 용기와 영감과 힘을 주고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지도력으로 안내하는 지도력에서 지도자는 안내자이며 촉진자여야 한다. 활기를 주는 지도력으로 지배하려 하지 않고, 함께 일하고, 공

동체 전체가 선교사들을 파견하고, 지도자를 지적하는 일이 허용된 초대 교회의 모습이다. 섬김/봉사로써 이해되는 지도력이다. 참여시키는 지도력으로 함께 하는 지도자로 성직자와 일반 신자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공동 책임을 지는 지도력이다.

4. 새로운 지도력의 시도들로 기초 공동체의 추대로 사목 협의회 구성은 사목 회장을 사목 협의회 총회에서 선출하거나 본당 신부가 지명하여 임명하고, 회장이 회장단을 구성하고, 각 위원장을 추천하여 인준 받고, 위원장이 같이 일할 위원들을 구성한다. 이렇게 하여 소공동체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사목회를 구성함으로써 사목회와 소공동체가 긴밀히 연결된다. 가정 교리 운영으로 교회 활동에 참여 의식을 높이고, 신앙 생활 교육이 되고, 소속감과 유대감을 갖게 되고, 냉담자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5. 새로운 지도력의 시도들로 지도력의 나눔과 분산으로 지도력과 업무 나눔, 결정 기능 분산과 권한 나눔, 그리고 일인 일 직책 갖기이다. 참여의 장과 위원회 강화로 자기 소공동체에 우선적 참여, 사목회 각 위원회별 활동의 강화 그리고 평신도 예비 신자 교리 교사에 깊이 참여하고, 소공동체와 구역 안에서 직책을 나누어 일을 분담하여야 한다.

그래서 저는 신부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논리 즉 오랜 전통 안에서 교회는 지배적이고, 통치적이며, 먹여 주는 지도자에서 사람들을 촉진하고, 안내하는 지도력으로 활기를 주고, 사람들을 공동체와 봉사직에 많이 참여케 하는 섬김의 지도력으로 변화되어야 함에 대해서도 많이 공감하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시각에 대하여 의문점도 있기에 몇 가지 질문도 드리고 저의 소견도 덧붙여 보고자 한다.

1) 사제에 대해 지도자라는 말은 일반적 의미의 지도자와는 다른 표현이 아닐까? 또 달라야 되지 않을까?

발제자의 글 각주 1)에서 사제의 지도자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도날드 메서²⁶⁾에 의하면, 예언적인 주제에서 본다면, 사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에서의 지도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독재자도, 카리스마적인 인물도, 공상가도 그리고 완전한 인간의 모범도 아니다. 그의 역할은 파생된 것, 즉 보다 높은 실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가능케 하는 자’로서도 그는 자기 자신도 이보

26) Donald E. Messer, Contemporary of Christian Ministry, Abingdon press, 1990, in Chapter vi.

다 높은 실재에 의해 능력을 부여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부정에도 불구하고 사제는 지도자이다. 그렇지만 그의 지도력이 세상 사람들이 설명하는 식의 그런 지도력이 아니다. 우리가 예배 의식에서 사제의 지도력의 이런 독특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제단에 선 사제의 이렇듯 역설적인 관계 안에서이다. 다시 말하면 그의 지도력은 자기 회중에게 어떻게 그들이 전 생애를 통해 하느님께 말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요즘 교회의 현실에서 사제의 지도력은 남이 어떤 일을 하도록 가능케 하는 사람(enabler)이나, 공급자(equiper) 그리고 갈등 관리자(conflict manager)로 자리매김을 해 오고 있다. 주된 역할로서의 촉진자, 가능케 하는 자, 그리고 갈등 관리자의 효과는 모든 통일적이고, 활력에 찬 비전을 희생하는 대가로 부드럽고 잠정적인 평화를 이루려는 경향이 있다. 가능케 하는 자 그리고 갈등 관리자의 역할은 사목자로부터 어떤 예언자적 입력을 약화시킨다. 갈등 관리자는 논쟁적인 견해를 가지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은 교회에 평화와 통일성을 가져다줄지 모르지만, 지도자로서의 사목자의 소명은 교인들의 삶에 파트너로서 참여하는 것 이외에도 비전을 제시하고,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지시하고, 필요한 권위를 행사하는 것에서, 사제는 일반적 지도자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2) 섬기는 교회에서 종된 지도력이어야 되지 않을까?

발제문 207, 208 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새 지도력을 위한 세 가지 제안으로 이는 섬김의 지도력에서 나온다고 했다. 크리스찬 역사의 대부분을 통하여 나타난 지배적인 교회상은 섬기는 기구로서 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기대하는 기구로서의 교회였다. 교회 구조들 그것이 웅장한 유럽의 성당들이든 혹은 아담한 하얀 건물이든 종종 그 자체가 목적인 양 여겨져 왔다. 사람들과 돈이 교회 안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은 거의 없었다. 교회가 구원에 필수적인 성사를 베푸는 자로 혹은 지역 사회의 도덕이나 관습을 위한 기준을 정하는 권력자로 간주될 때, 성직자 지배의 포로가 되는 일이 종종 있어 왔으며, 이 권위주의적 스타일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옥죄어 왔다. 교회가 위신과 사회적 지위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때, 우리 교회는 주도적으로, 교인은 현 옷가지들을 말없이 자발적으로 수집하고 수선하여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나 학대당하는 아이들과 배우자들을 돕고 보호하는 일에 헌신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은행의 총재나 대기업의 이사와 다를 바 없다.

교황 요한 23세가 불러일으킨 위대한 혁명 중의 하나는 종된 교회가 되는 것에 대한 가톨릭 내에서의 새로운 자기 이해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발표된 ‘현대 세계에서의 사목 현장’의 문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교회도 전체 인류의 형제 자매됨을 촉진시키는 일을 통하여 이 세상을 섬기도록 노력해야만 하는 것을 분명한 어조로 가르쳐 준다. 공의회는 이러한 이해는 섬기는 교회에서 종된 지도자(Servant leadership)로서의 교회의 이해이다. 첫째 종된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사도적 안에서 하나의 지위가 아니라 인류에 대한 봉사로서 이해한다. 교회 안에서 사제, 주교, 학교 총장과 같은 직책으로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런 전문화된 직책에 부름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종들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이다(Servus Servorum Dei). 즉 진정한 돌봄과 헌신에 기초한 참된 관계성을 수립하는 자이다. 예를 들면 종된 지도자는 지위에 대한 염려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하느님과 인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둘째는 종된 지도자는 근본적으로 권위는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섬김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힘이란 선거나 임명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더욱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랑 넘치는 섬김에 의해 얻어진다. 셋째 종된 지도자는 모든 인간의 삶은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고 진리는 종종 역설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기에 모든 인간적 조건에 공감할 줄 안다. 그들은 선부른 비난이나 거절의 정신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의 정신을 갖고 사람들에게 접근한다. 그들은 죄가 아니라 죄인을 사랑한다. 파괴된 인간적 상황에 대해 공감하는 시각을 갖는다. 넷째는 종된 지도자는 단순한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길을 여는 개척자가 되는 것이다. 개척자는 얽히고설킨 쟁점들을 분류하고 그 반응을 조직화 하고 차이점을 풀어갈 줄 아는 문제 해결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개척자는 평범한 문제 해결자 그 이상이다. 개척자는 교회의 미래가 어떤 모양을 가져야 할 것인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가, 조직이나 기구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들이 필요한가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비전을 준다. 또한 교황님께서 “하느님의 종들의 종”으로 자기를 이해한 점에서도 섬기는 교회에서 종된 지도력이어야 한다는 면에서 저의 입장과 다른 것 같다.

3) 지도력은 파트너십이어야 하지 않을까?

발제자의 요구되는 지도력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제시하는 ‘참가와 공동 책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도력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도력의 나눔의

형태로 결정 기능 분산과 권한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일인 일 직책 갖기를 권하고 있다.

소공동체는 하느님 안에서 보이는 이웃과의 친교적 관계를 맺어 나간다. 이런 의미에서 지도력은 파트너십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파트너십²⁷⁾이라는 말은 코이노니아(Koinonia)라는 말로 표현되는 말이다. 또한 이 말은 Koinonos(동반자, partner)와 Koinoneo(참여하다, to take part)가 있다. 이들은 koinos(공통적, common)에서 나온 말이다. 신약 성서에서는 흔히 누구와 무엇인가를 나눈다는 의미로 쓰인다. 어떤 상호 관련적 관계로 형성된 공동체 안에서 공동적 결함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이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고, 쌍방적 관계, 주고받는 상호 참여의 관계를 지니는 그런 의미이다. 이것은 또한 어느 한쪽만이 주체가 되고 다른 한쪽은 대상이 되거나 종속적 관계에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주체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의식하는 것이며, 자신이 선택하고 행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한다. 파트너의 주체성을 긍정하고 뒷받침해 주는 덕목으로는 성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섬김(servanthood)이라는 것이 있다. 남을 섬긴다는 이 말은 "diakonia"(봉사)라는 말에 관련된 말로서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과제를 자기 자신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이런 개념은 어떤 공동의 과제를 함께 풀어 나간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공동의 과제를 같이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서로 파트너십으로서 그 일에 참여하는 관계를 나타낸다. 공동의 과제란 하느님의 선교 과업(Missio Dei)이다. 하느님의 선교는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하느님께서 인류와 함께 하신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공의회에서 말하고 있는 친교와 공동 책임은 파트너십 안에서만이 가능한 지도력일 것이라 생각된다.

4) 여성의 리더십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발제자가 언급했듯이 전통적으로 지도력은 통제적이고 지배적인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다. 관계성 안에서 볼 때 교회는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발제문 안에서도 신부님께서서는 교회를 보고, 사회의 구조를 보셨다. 예를 들면 사회를 올바르게 알아야 교회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사회의 빠른 움직임에 교회의 감지와 그에 대한 대응 안에서 볼 때 지도력은 상호 의존적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이러한 직관적 인식은 여성이 탁월하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교회 구성원의 60%이상이 여성인데 여성 리더십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

27) L.M. Russell, The Future of Partnership, Westminster Press, 1979. p.28

끝으로 좋은 공부의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린다.

한국 천주교 소공동체와 사도직 운동

강영옥 루치아(서울 대교구)

- 차례 -

1. 들어가면서
2. 사도직 운동
 - 2.1 레지오 마리아
 - 2.2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 2.3 꾸르실료
3. 소공동체
4. 소공동체와 사도직 단체들과의 관계 정립
 - 4.1 소공동체에 대한 공감대 형성
 - 4.2 평신도의 자발성
 - 4.3 권위주의의 청산
 - 4.4 사도직 단체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
 - 4.5 소공동체의 심화
5. 나가면서

한국 천주교 소공동체와 사도직 운동

강영옥 루치아(서울 대교구)

1. 들어가면서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는 선교사의 전교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신앙 활동으로 시작되었다. 후기 조선 사회가 안고 있던 여러 모순들을 일부 유학자들이 서구 문화와 사상[西學]을 통해 극복해 보려 시도하였고 그것은 신앙 생활로 이어졌다. 만인 평등 사상을 지닌 천주교 사상은 당시 조선의 신분제 사회를 뒤흔드는 매우 새로운 사상이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위정자들은 천주교가 조상 제사를 거부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100여 년 동안 박해를 가하였다. 기나긴 박해 시기 동안 천주교 신자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빈곤 상태로 내몰리거나 목숨마저 내어 주기를 주저치 않았다. 이러한 평신도들의 신앙관이 오늘날 한국 천주교회의 밑바닥에 면면히 흐르고 있다. 한국 천주교회는 세계가 부러워할만한 성장률을 자랑하고 있으며 활기찬 교회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한 모습들은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열성적인 신앙 활동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평신도가 주축이 된 사도직 운동은 1950년대 이후 한국 천주교회 안에 등장했다. 1953년에 시작된 레지오 마리아를 비롯하여 한국 천주교회 안에 전개된 사도직 운동으로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꾸르실료, MBW(Movement for Better World), ME(Merrage Encounter), 성령 쇄신 봉사회, 지속적인 성체 조배회, 마리아 사업회(포콜라레)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도직 운동은 한국 천주교회를 활기차게 이끌어온 원동력이었다. 또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이 지향하는 평신도의 역할과 위상도 그러한 사도직 활동을 통해 정립될 수 있었다.

한편 이러한 사도직 운동과는 별도로 1990년대 이후 한국 천주교회 내에서 소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천주교회는 외적으로 놀랄만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내적으로는 사립, 나눔, 인격적 만남이 점점 어려워져 ‘친교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모습을 잃어

버렸다는 비판들이 일어났다.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교회상을 모색하기 위한 작업과 더불어 새로운 사목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그리하여 서울 대교구의 경우 1992년부터 2000년대 복음화와 소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사목이 시도되었다. 그것은 교회의 모습을 초대 교회 공동체의 이상(理想)으로 현대화시켜 보려는 노력이었다.²⁸⁾

그러나 지난 15년간 소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났다. 그 중 하나가 소공동체와 사도직 단체들과의 관계 정립 문제이다. 소공동체는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반모임의 연장선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혹은 또 다른 단체 활동처럼 여겨졌다. 신자들 중에는 자신이 속한 사도직 단체에는 열성적으로 참여하면서 소공동체 모임은 의례적인 모임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었다. 소공동체 모임을 활성화하려는 본당일수록 가장 많은 신자들이 참여하는 사도직 단체인 레지오 마리아와 소공동체간 마찰을 겪었다. 그러자 일부 본당 사목자는 소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레지오 마리아를 지역으로 재편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애 버리기도 하였다. 그러한 일들은 사목자와 평신도 간의 대립으로 치달았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오해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소공동체를 본당 안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각 사도직 단체들과의 관계 정립이 우선적인 하나의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에 2002년 제2차 소공동체 전국모임에서는 레지오 마리아와 소공동체의 관계 정립을 위한 본당 조사 및 연구가 처음으로 시도되었다.²⁹⁾

이 글은 그러한 문제 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쓰여지게 되었다. 즉,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21세기 교회 안에 소공동체와 사도직 단체들 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도되었다. 더불어 이러한 심포지엄 자리를 통해 언로(言路)가 막혀 있는 천주교회 안에 평신도와 성직자 사이에 자유로운 상호 대화와 토론의 물꼬가 열리는 작은 시도가 되길 기대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사도직 단체들의 특성들을 짚어 보기로 하겠다. 그 단체들을 통해 평신도 사도직이 어떻게 수행되어 왔으며 그 단체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그런 다음 소공동체의 특성과 사도직 단체들의 특성을 대조해 살펴 보겠다. 사도직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소공동체와 사도직 단

28) 박기주, “2000년대 복음화와 소공동체”, 『가톨릭신학과 사상』 9집,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3, 99-110쪽.

29) 차동엽, “소공동체와 레지오 마리아의 신학적 자리매김”; 성준한, “레지오와 소공동체의 협력적 발전을 위한 의제 제기”; 김종욱, “소공동체와 레지오 마리아의 관계 모색”; 강영욱, “소공동체와 레지오의 협력과 발전을 위한 본당 조사 보고서”, 『2차 소공동체 전국모임 자료집』 1992, 251-321쪽.

체들은 어떤 공통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 검토해 보겠다. 마지막으로 21세기 교회상을 그려보면서 사도직 단체와 소공동체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모색해 보기로 하겠다. 현대 사회 안에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미래 교회상을 사목자와 신자들이 공유할 수 있을 때, 교회 안에 내재한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서 새로운 전망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2. 사도직 운동

사도직은 본시 그리스도의 직무이며(1고린 1,1 참조),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직무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직무는 안수와 파견을 통해 계승되는데, 직무를 계승한 자들은 그 직무의 성격에 따라 단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예수의 사명과 사도의 사명을 구현한다(요한 20,21 참조). 교계적 사도직은 성품 성사에 의하여 계승되지만, 평신도 사도직은 성세 성사와 견진 성사에 근거하여 평신도들의 참여로 수행된다. 교계적 사도직은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으로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며 다스리는 임무를 수행하지만, 평신도 사도직은 그리스도의 예언직, 사제직, 왕직에 참여하며 세상 안에 복음 정신을 실천하는 것으로 수행한다.³⁰⁾ 따라서 평신도 사도직은 교계(敎階)에 의하여 주어진 위임(mandatum)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일치(일상 생활 안에서 더욱 깊고 생생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교회 모든 사도직의 원천과 기원은 그리스도이므로 평신도 사도직의 결실은 그리스도와 평신도의 산 일치에 달려 있다(「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4항 참조).

역사 속에서 사도직 운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그래서 사도직 단체들도 매우 다양하다. 교회 사도직의 일반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어떤 단체는 특별히 복음화와 성화를 목적으로 삼고, 어떤 단체는 현세질서의 그리스도화를 목적으로 추구하며, 어떤 단체는 자선 활동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언한다(「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19항 참조). 사도직을 수행하는 단체는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발기하여 운영해 나가기도 하고, 교회의 권위자가 영적 목적을 지향하는 사업 중에서 특정한 것을 선택하여 특별히 추진시키는 경우도 있다.

한국 천주교회 안에 활성화되어 있는 사도직 단체들도 각 단체마다 고유의 목적과 활동이 있다. 사도직 운동은 어느 한 측면을 특수한 방식으로 생활화 하려

30) 평신도 사도직 활동을 사도직이라 부른 것은 19세기 중엽의 일이다. 오늘날에는 '사도직 운동'을 '평신도 사도직 운동'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는 신자들의 모임이며 특수한 영성을 지닌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직무를 따르는 점에서 사도직 단체들은 서로 공통 분모를 가진다. 소공동체 역시 그리스도의 직무를 따르는 일이라고 할 때, 사도직 단체와 소공동체는 서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 글에서는 비교적 역사가 오래되었고 전국적인 규모를 가졌으며 소공동체와 상호 영향을 미치는 사도직 운동으로 레지오 마리아, 빈첸시오회, 꾸르실료에 한정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꾸르실료 운동에 뒤이어 MBW, 포콜라레, 성령 세미나, ME 등 다양한 사도직 운동이 더 전개되었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삼겠다.

2.1 레지오 마리아

한국 레지오 마리아는 1953년 도입된 이래 급속한 성장을 이루면서 평신도 사도직 활동의 큰 축을 형성해 왔다. 레지오 마리아는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투스(1958년 진출)와 서울 무염시대 세나투스(1978년 진출)를 중심으로 현재 27만 여명의 행동 단원과 3만 500여개 브레시디움의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레지오 마리아가 한국 천주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의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있다. 한국 전쟁 직후 교회는 전교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이 매우 부족한 상태였다. 당시 광주 교구장 서리였던 현 하롤드 주교는 평신도 사도직 활동을 활성화하고 촉진시키는 것이 교회 성장을 위해 유익하다고 생각하였다.

“초대 가톨릭 신자들이 교회 발전 초창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듯이...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초대 신자들의 불타는 정신을 본받아야 할 것이며 전교의 사명을 이행함에 있어서 소극적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성직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신비체에 관한 모든 사도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이 신비체의 참된 지체로써 교회 사업에 있어서 달리 대치할 수 없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³¹⁾

현 하롤드 주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 시기에 이미 평신도 사도직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으며 한국 초기 천주교 평신도들의 영성을 살리기 위해 레지오의 도입을 꿈꾸고 있었다. 현 주교는 평신도들을 조직하고 교육하기 위한 틀로서 레지오 마리아를 도입하였다. 1953년 목포에서 3개의 브레시디움으로 시작된 레지오 마리아는 1956년 전국적으로 소개되었고,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여 1965년경

31) “전남 광주교구에 평신도 사도직”, 『경향잡지』, 48호 (1956,4.) 130쪽; 허윤석, 「한국 레지오 마리아와 선교」 가톨릭대학교 석사논문, 1999, 29쪽에서 재인용.

에는 8백여 개의 뿌레시디움이 생겨났다. 1979년 광주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세나투스 시대에 접어들면서 200만 신자화를 위한 민족 복음화 운동을 전개하였고, 1986년부터 300만 신자화를 위한 민족 복음화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다가 그러한 성장세가 갑자기 둔화되고 1992년 말을 기점으로 레지오 단원들의 성장률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후 레지오 마리아는 정체 상태에 들어선다. 통계를 보면 행동 단원 증가율이 점차 감소하다가, 2002년 9월에 28만 5468명에 달하던 행동 단원이 2003년 3월 현재 27만 2258명으로 집계돼 6개월 만에 단원 1만 321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수천 명 이상 늘던 단원 수가 한국 레지오 역사상 처음으로 1만 명 이상 떨어진 것이다.³²⁾

그렇게 되자 한국 레지오는 자체적으로 성장 둔화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을 시도하였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였다. 서울 세나투스는 1992년도에 단원 개인의 성화 부족을 그 원인으로 진단한 후 단원에 대한 교육과 피정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허윤석은 자신의 석사 논문에서 조직 성장의 불균형성에서 왔다고 진단하였다. 즉, 레지오는 매우 빠른 속도로 한국 교회 내에서 양적 급성장을 하였는데, 같은 기간 한국 신자의 증가율은 크게 향상되지 않아 조직의 불균형이 생겼다는 것이다. 협조 단원의 수가 행동 단원 수의 두 배 이상이 되어야 조직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데, 1984년 이후 활동 단원의 수가 협조 단원보다 많아짐으로써 균형이 깨졌고, 기도와 성화 부족으로 말미암아 레지오 성장이 둔화되었다고 진단하였다.³³⁾ 그의 분석은 단원들의 기도 부족 및 영성 고갈에서 성장 둔화의 원인을 찾고 개인의 성화를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2003년 한국 레지오 도입 50주년을 기념하면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고 이 자리에서 많은 의견들이 개진되었다.³⁴⁾ 레지오 마리아의 간부들은 이제 그 성장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각 교구 레지오 마리아 임원들은 우선 성장만을 거듭해 오면서 그 거대한 조직 운영에 맞갖은 영성의 심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또한 레지오 마리아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제시하는 새로운 교회상 구현에 발맞추지 못했고, 성서 공부에 소홀했던 점도 지적하고 있다. 레지오 마리아에 대한 의견들을 정리해 보면, 1) 개인의 성화 부족, 2) 레지오

32) “한국교회 가톨릭운동 단체를 전망한다. (3) 레지오 마리아” 『평화신문』 2003년 6월 22일자.

33) 허윤석, 앞의 글, 69-71쪽.

34) 2002년 12월 13-14일 경북 칠곡 한티성지피정의 집에서 「레지오 마리아 정신회복」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간부들의 자질 및 지도력 부족, 3) 교회 사목자와 지도자들의 관심 부족, 4) 소공동체와의 마찰, 5)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는 활동, 6) 개인 위주의 풍조 속에서 단체 조직력의 약화 등이다.

레지오 마리에 관계자들은 단원들의 정신 재무장을 통한 활동의 활성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기도와 봉사활동에 머무는 활동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교회 안팎의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는 활동 영역 확대와 전문화, 단지 ‘선교의 도구’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감시자 또는 견제 기구’로서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을 전개하고 사회 공동선 실현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대안들을 제시한다. 그러한 제안들이 과연 현재의 레지오 마리에 틀 안에서 수용될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 더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레지오 마리아가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레지오 마리아의 성장 과정이 한국 천주교회의 성장과 맞물려 있고, 레지오 마리아는 한국 천주교회 안에 가장 성공한 사도직 단체로 볼 수 있다. 그 어떤 사도직 운동도 레지오 마리아처럼 성공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창설자 프랭크 더프(Frank Duff)에 따르면 레지오 마리아의 주된 목적은 선교라고 할 수 있다. 더프는 처음에 빈첸시오회에 가입하여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과 양식을 나누어 주는 활동을 하였다. 그러다가 물질적으로 빈곤하지 않지만,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을 찾아 선교해야겠다는 각성과 더불어 레지오 마리아를 시작하게 되었다. 더프의 선교 이념은 ‘평신도 사도직 활동으로서의 선교’, ‘선교 활동을 통한 성화’, ‘마리아를 통한 선교’로 요약될 수 있다. 그는 선교 활동에 있어서 평신도가 주체가 되는 길을 모색했고 평신도들에게 선교 활동의 새로운 길을 열어 주었다. 레지오 마리아는 선교 활동을 목적으로 한 최초의 평신도 사도직 단체이다.³⁵⁾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의 레지오 마리아는 그 본래 목적을 달성한 매우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레지오 마리아는 지난 50년간 입교 권면, 방문 선교, 복지 시설 자원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 천주교회의 성장을 이루는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 21세기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였고 한국 레지오 마리아도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되고 쇄신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50년간 우리 사회는 레지오 마리아의 활동을 통해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맥락(Context)이었지만, 이제 21세기 한국 사회는 레지오 마리아의 본래 목적과 활동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2.2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35) 허윤석, 앞의 글, 3-6쪽.

빈첸시오회는 가난한 이웃 안에 계시는 고통당하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형제적 사랑과 이웃에 대한 봉사를 실천하는 평신도 단체이다. 창설자 프레데릭 오자남(Frederic Ozanam, 1813-1853)은 1833년 프랑스 파리에서 ‘자선 협의회’를 세워 동료들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자선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를 수호성인으로 모시고 1835년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로 개칭하였으며, 1845년 교황 그레고리오 16세로부터 평신도 단체로 승인 받았다.

한국 빈첸시오회는 1955년 충주 교현 본당 주임 보어(Borer, 玉保乙) 신부가 시작하였고, 1961년 1월 29일 총 이사회로부터 정식 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교구 이사회(청주, 1963년; 서울, 1967년; 마산, 1971년)가 생기고 1975년 전국 이사회가 창립되었다. 지금은 14개 교구 이사회가 조직되어 있고 전 교구 산하 488개 협의회에 활동 회원 5,734명과 명예 회원 29,946명이 활동하고 있다.³⁶⁾

한국 빈첸시오회는 규모가 큰 사도직 단체는 아니지만, 한국 교회가 가난한 이들 가운데 뿌리내리는 데 특별한 역할을 해 왔다. 빈첸시오회는 가난하고 고통 받는 자와 사회로부터 소외된 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활동으로 삼는다. 회원들은 본당별, 지구별, 교구별로 환자 방문과 입원 주선, 극빈자 가정 방문과 물적 지원, 교도소 재소자 및 사회 복지 시설 방문, 가출 청소년 지도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고 1989년부터 간병인회를 만들어 간병인들을 성모 병원에 파견하였다. 1996년에는 행려자를 위한 무료 급식소 ‘성 빈첸시오 사랑의 집’을 서울에 개설하였고, 행려자를 위한 단기 이용 시설, 알콜 중독자 선도, 북한 동포 돕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곤경에 처한 이웃 안에서 하느님을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

회원들은 우선 본당 사목 활동에 대한 일반적 봉사에 협조하고 본당을 거점으로 사회 안에서 고통 받는 다양한 사람들을 찾아 나선다. 빈첸시오회의 조직은 본당 안에 구성된 협의회를 기본 조직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남성, 여성, 혼성, 청소년 협의회가 있다. 지구 단위의 지구 이사회를 비롯하여 교구 이사회, 전국 이사회가 있으며 이들은 파리에 있는 총 이사회를 중심으로 통일성을 이룬다. 매주 1회 회합을 갖는 협의회에서 기도와 구체적인 활동에 관한 협의를 한다. 회원은 매주 회합에 참석하고 직접적인 만남으로 애덕을 실천하는 활동 회원과 일정한 회비를 납부하는 명예 회원으로 나뉜다.

36)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가톨릭대사전 제6권 3832-3833쪽.

빈첸시오회의의 영성은 빈첸시오 성인의 가르침에 따라 가난한 이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뵈는 것이며, “보잘 것 없는 이들에게 한 일들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마태 25,40-45)라는 주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다. 빈첸시오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길만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과 함께 가난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과 인격적인 접촉을 하면서 영신적 일치룰 이루는 것이 빈첸시오회의의 본질이며 근본 성격이다. 회원들은 가난한 형제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어 준다. 즉,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 주거나, 푼돈을 나누어 주거나, 방문을 하거나, 함께 대화를 나누는 등 곤경에 처한 이웃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성심껏 한다.³⁷⁾

빈첸시오회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 요소인 가난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으로 드러내는 사도직 단체이다. 그런데도 레지오 마리아와 비교할 때 사도직 단체로서 크게 성장하지 못하였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빈첸시오 전국 이사회 초대 이사장을 지낸 한병은은 세상을 복음화 하기 위해 먼저 교회 자신의 복음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우리나라 본당의 1년 예산 중 몇 퍼센트가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지, 교회가 가난함을 충분히 드러나지 있는지를 반문하면서, 현실적으로 약한 자, 학대받는 자, 고통 받는 자 측에 교회가 서 있는지 돌아보라고 말한다. 빈첸시오회의의 활동은 본당에서 본당 사제와 평신도 대표들의 절대적 후원과 관심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그러한 후원을 얻기가 대단히 어렵고 오히려 외면당하거나 기피당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교회의 신자 수는 늘었지만, 복음적 삶의 실천은 그에 미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가난한 삶을 선택하고 가난한 자와 한 편에 서라는 복음적 권고가 한국 천주교회 신자들에게는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었기에 빈첸시오회가 한국 교회 안에 성장할 수 없지 않았을까 반성하게 된다. 한병은은 본당 내 레지오 마리아와 빈첸시오회의와의 협동 활동을 권장하기도 한다.³⁸⁾ 그는 사도직 단체 간의 연대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2.3 꾸르실료

꾸르실료 운동은 1949년 스페인에서 시작되었는데, 한국에 전수된 것은 제2차

37) 한병은, “성 빈첸시오 아 빠올로회”, 『신학전망』 Vol. 67, 광주가톨릭대학교 1984, 48-59쪽 참조.

38) 같은 글, 57-59쪽.

바티칸 공의회가 끝난 직후인 1967년이였다. 후안 에르바스 주교를 중심으로 시작된 꾸르실료 운동은 처음에는 성직자가 주도하는 경향을 가졌다. 그러다가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계기로 평신도 사도직의 중요성이 일깨워지면서 꾸르실료 운동은 평신도와 성직자가 서로 협력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에 꾸르실료 운동이 도입되던 1960년대 한국 교회 안에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의식이 없었고 대체로 신자들은 소극적이고 타성적이며 수동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다. 사도직 수행은 성직자나 수도자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졌고, 신자들은 계명 이행과 개인적인 기도 생활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꾸르실료 운동이 도입되었고 곧 신자 재교육의 장으로 그 몫을 담당하게 되었다. 꾸르실료가 교회 내의 지도자 단기 양성 코스로 자리 잡으면서 한국 교회의 성장과 함께 꾸르실료 운동도 성장하기 시작했다. 교회 내의 각 단체 책임자, 임원 및 사목위원등 대부분의 평신도 지도자와 성직자, 수도자들이 꾸르실료를 체험하고 교회 내에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교회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꾸르실료는 그리스도교 정신과 생활을 사회 속에 구현하려는 신앙 쇄신 운동이다. 이상, 순종, 사랑의 실천을 창설이념으로 하는 이 운동은 개인의 성화와 교회의 쇄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꾸르실료는 조직이 아니라 운동이며, 그리스도인을 훌륭한 주님의 사도로 만들기 위해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방법이다. 꾸르실료 운동은 3일의 꾸르실료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느님과 일치하려는 내적 변화로 이끌리는 회심의 여정이다. 즉, 자기와의 만남(하느님 체험)을 통한 정화의 길, 하느님과의 만남(회심 체험)을 통한 조명의 길, 이웃과의 만남(소명 체험)을 통한 일치 길을 걷게 된다. 영성 형성의 3단계를 거치면서 하느님 사랑을 인식하고 하느님께로 향하는 구체적 응답의 삶으로 초대받는 과정을 통해 꾸르실료의 영성이 형성된다.

3박4일의 교육을 받은 꾸르실리스따들은 신앙과 삶의 변화를 체험하였고 곧 전국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꾸르실료 교육의 효과에 대해 서울 27차 꾸르실료에 참가하였던 장대익 신부의 말을 빌어보면,

“3박 4일 동안 얻은 체험 한 두 가지 말해 볼까 한다. 첫째 3박 4일의 꾸르실료 교육이 매우 감격스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까지 내 사제 생활은 제 시간에 미사 드리고, 별로 준비 없이 강론을 하고 예비 신자 교리는 수녀님께 맡기고 성사를 청하는 사람에게 그저 기계적으로 거행

해 주고 혼배와 장례를 지내 주는 등 일종의 교회라는 체제 속에 ‘공무원’격의 생활을 반복해 왔음이 사실이었다. 사실 신부님이라는 명칭보다 사제 생활의 내용이 문제이며 사제는 사회와 고립되어 이색적인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생활해야 한다. 이것이 현대가 요구하는 참된 사제상인 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과거의 타성적인 사제 생활을 타파하지 못하고 있던 나에게 꾸르실료 교육은 하느님의 큰 은총이었다. 이번 꾸르실료에서 나는 이제부터 ‘벼슬하는 신부’나 ‘신자들을 다스려 보려는 신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신자들과 함께 일하는 참된 사제 생활을 해야겠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한다.”³⁹⁾

꾸르실료 교육을 받은 성직자, 평신도, 수도자들은 수동적이고 타성에 젖었던 신앙 생활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활기찬 모습으로 바뀌었다. 꾸르실료를 통해 신앙심이 깊어졌고 특히 사도직 활동 자체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었다.⁴⁰⁾ 많은 꾸르실리스따들이 이 단기 교육 코스를 이수했고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로서 교회 내에서 많은 활동을 하였다. 꾸르실료 운동은 전국에 걸쳐 크게 성장하였고 교회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 교회는 급성장하였고 꾸르실료 운동 역시 꾸르실리스따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때를 같이하여 냉담 신자와 냉담 꾸르실리스따가 속출되는 공동화(空洞化) 현상도 나타났다. 1990년대에 들어서자 꾸르실료 운동은 다른 사도직 운동과 마찬가지로 정체기를 맞게 된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꾸르실료 영성 연구소장, 유양수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꾸르실료 운동은 처음 10년(1967-1977) 동안 한국 모든 교구에 전수됐고 초기의 봉사자들은 꾸르실료의 모습을 소박하고 충실하게 전했다. 그러나 다음 10년(1978-1987) 동안에는 소위 토착화의 명목으로 개정과 수정을 단행하며 꾸르실료를 소위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 양성이라는 교육의 장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꾸르실료 영성의 본질이 왜곡되는 괴도 이탈 현상이 발생되었다. 남은 10년(1988-1997 및 현재)의 전반기는 특별한 여과 없이 전 10년의 꾸르실

39) 꾸르실료한국협의회, 『한국꾸르실료 20년사』, 1987, 61쪽.

40) 김수환 추기경은 8차 전국 울뜨레야(1979)에서 다음과 같이 꾸르실료를 평가하였다. “꾸르실료를 통해서 모든 분들의 신앙심이 깊어졌고, 이 꾸르실료 운동이 우리나라 평신도 신앙 교육에 크게 이바지했으며 우리의 생활 전체를 새롭게 쇄신하는 활력소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또 꾸르실료의 도입은 평신도 사도직 활동 자체에 활력소를 불어 넣어 참으로 생동하는 교회를 이룩해 주었습니다.” 같은 책, 67쪽.

료의 모습대로 관성에 의한 동일한 지향으로의 세월이었으나, 후반기는 세계 협의회 의장국 피선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전환점이 되어 꾸르실료의 카리스마를 재확인하는 성찰의 계기가 되었다.”⁴¹⁾

유양수는 꾸르실료의 본질이 개인의 성화이며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의 교육인데, 역사적 과정 안에서 토착화한다는 명분으로 꾸르실료 본래의 영성을 벗어나 평신도 지도자 양성 단기 코스로 변질되었음을 지적한다. 꾸르실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본래의 소명 의식에 강조점이 있으며 소명을 깨달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차영준은 “현재 많은 꾸르실리스따들이 배출되었지만 실천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히 투입됨으로써 어디서부터 어떻게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지 방황하다가 주저앉은 상황이다. 앞으로 꾸르실료의 실천적 삶을 우선 구역과 반에서부터 시작해 그곳에서 실천적 뿌리가 깊어질 때 우리는 비그리스도적인 환경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다.⁴²⁾ 단기간 영성 교육을 받은 후 그것을 삶으로 이어갈 실천의 장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 꾸르실료가 35년 역사를 지녔고 꾸르실리스따가 10만 명을 넘어섰지만 21세기라는 새로운 시대 속에서 어떻게 가야 할지 고민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유양수는 삼천년기 새로운 도전 앞에서 꾸르실료가 감당해 나갈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3박 4일의 꾸르실료를 체험한 꾸르실리스따들은 필수적으로 가까운 시일 안에(3개월 이내에) 후속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우리의 복음적 권고인 이상, 순종, 사랑의 덕목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꾸르실료의 구체적 삶의 영성(기도의 삶, 나눔의 삶, 핵심 그룹의 삶, 예수님 군사로서의 삶)을 제시해 줄 것을 제안한다.

셋째, 후속 프로그램에는 꾸르실료의 신원과 영성이 충분히 인식되도록 하는 내용이 구성되고 내적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영적 수련의 내용이 내재되도록 구성되기를 제안한다.

넷째, 팀 회합과 울뜨레야의 진행 순서는 행사나 방법의 제시보다는 기도와 수련의 의미가 부각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⁴³⁾

41) 유양수, 「꾸르실료 영성과 한국 꾸르실료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42) 차영준, “제삼천년대를 향한 꾸르실료 영성 형성”,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심포지엄 자료집, 2001.

43) 유양수, “제3천년대를 향한 꾸르실료 운동의 도전과 자세”,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심포지엄 자료집, 2001.

꾸르실료는 본래 영성을 충실하게 하면서도 구체적인 현실에서 꾸르실료 영성을 확산시킬 수 있는 장을 찾고 있다. 또한 외형적인 행사 위주보다는 내면을 중시하는 기도와 수련에 충실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대로 한국 교회 내의 사도직 운동은 1950-60년대에 시작하여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빠르게 성장하였고 한국 교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각 사도직 단체들은 위기를 겪고 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진단을 하고 대안을 마련해 보지만 큰 실효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도직 단체들은 성장 부진의 원인을 그동안 양적 성장에만 치중해 왔고 내적 영성의 심화를 소홀히 하였던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면서 그 해결책도 본래의 사도직 영성을 회복하고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사도직 운동이 위기를 겪던 1990년대에 소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의 변동과 관련이 깊다. 한국 사회는 한국 전쟁 이후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에 근대화의 과정을 겪었다. 이 시기 한국 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근대화가 촉진되었고 천주교회로 찾아오는 신자들의 수도 급격하게 늘었다. 사도직 운동은 이러한 천주교회의 성장과 더불어 성장하였다. 그러나 점차 도시 본당들이 대형화되고 성직자 중심의 관료적인 조직으로 통제가 되면서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줄어들게 되었다. 도시 산업화에 따른 발전은 빈부의 격차와 계층간의 갈등을 낳았는데, 제도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반영되었다. 본당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사목 방침이 세워지고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 한국 교회는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지만, 본당의 비대화와 내적 공동화 현상이 생기게 되었다. 한국 교회는 가난, 나눔, 섬김의 삶을 외면하였고, 본당 신축, 신자들의 중산층화, 대화 단절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따라서 1990년대에 들어서면 한결같이 영성의 부족을 말한다. 신자들은 활동 위주의 신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교 영성의 내적 심화를 갈구하게 된 것이다. 성사 중심, 전례 중심, 성직자 중심의 사목이다 보니 사제들은 과도한 사목 업무에 시달리고 권위적인 자세로 임하게 되었다. 신자들은 타율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갖게 되고 사목자와 신자들 상호간 대화가 단절되고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개인적이고 형식적인 만남으로 대부분의 신자들은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고 냉담자도 갈수록 늘어만 갔다. 그러한 모순 현상이 교회 안에 드러나는 시점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제시한 “친교의 공동체”로서 교회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소공동체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3. 소공동체

소공동체는 사도적 운동 혹은 사목적 전략이 아니다. 소공동체는 신심 단체 혹은 수도회 활동도 아니다. 소공동체는 교회 자체로 존재한다. 소공동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제시하는 새로운 교회상을 지향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제시하는 교회론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친교에 바탕을 둔 ‘친교의 교회론’이다. 친교는 “그리스도인 각자와 그리스도의 친교,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상호간의 친교”⁴⁴⁾를 뜻한다. 『교회현장』에서 교회는 ‘하느님과 깊은 일치로 이루는 신비체’로 정의된다. 교회는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도구이며 표지’이다. 또한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인데 즉 성직자, 평신도, 수도자가 하나된 공동체이다.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보여 주는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바로 교회인 것이다. 그러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실현시키기 위해 소공동체가 제안되는 것이다.

소공동체는 교회의 쇄신과 새로운 방향의 사목을 요구한다. 성직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를 지향한다. 위로부터 하향식의 수직적인 교회 구조를 탈피하여 하느님 백성들이 서로 평등하게 인격적 친교를 이루는 수평적 교회로 나아간다. 교계 제도는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봉사에서 그 권위의 근거가 주어진다. 사목자들은 관리자나 교사가 아니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목자의 모습으로 변신해야 한다. 소공동체 사목은 단순히 교회가 대형화 되고 도시 본당이 비대해져서 신자들을 잘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다. 소공동체는 현대 사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의지대로 가장 가난한 자, 가장 버림받은 자를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고 공동체와 함께 하기 위해서이다. 하느님의 가없는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 그 사랑을 가난한 이웃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다. 칼 라너는 미래 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미래의 교회는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창의력과 자유로운 결합에 의하여 생겨나는 기초 공동체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될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발전을 억제하지 말고 촉진하면서 그것이 올바른 궤도를 달리도록 전력으로 경주해야 한다...그런 새로운 변화는 언제나 전승되어 온 복음의 메시지와 그리스도교로부터 유래하는 사도적 전승의 직무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과 내일의 교회가 과거에 비해서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나리라

44) 『평신도 그리스도인』, 18-19항.

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물론 아래로부터 발생하는 동시에 복음의 부름과 과거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의 메시지에 의하여 발생하는 그런 기초 공동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아직 분명하지 못하며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⁴⁵⁾

소공동체는 교회가 가야 할 하나의 새로운 길이요, 교회 역사의 새로운 전형이다. 소공동체는 교회의 근본적인 변화와 쇄신을 목적으로 한다. 소공동체는 미래 교회의 밑그림이다. 소공동체는 21세기라는 새 술을 담기 위한 새 부대인 것이다.

4. 소공동체와 사도직 단체들과의 관계 정립

소공동체를 교회의 미래상이라고 할 때 소공동체와 사도직 단체간의 올바른 관계 정립이 하나의 과제로 떠오른다. 신자들은 소속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었던 단체 중심의 신앙 생활에 익숙해져 있고, 각 사도직 단체들은 자신의 역할과 중요성을 지키려고 한다. 여기서 오는 인식 전환과 관계 설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월기 신부는 “그동안 많은 신자들이 레지오를 비롯한 다른 단체 활동도 많은데 소공동체 모임까지 하기에는 너무 벅차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기존 단체는 단체대로 나름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이에 반해 소공동체에 대한 신자들의 의식이 부족한 만큼 이러한 난관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⁴⁶⁾

소공동체는 사도직 단체와는 구별된다. 사도직 단체들은 특수한 기능이나 카리스마를 드러내지만 소공동체는 교회의 다양성을 일치 안에 통합하고 드러낸다. 소공동체와 사도직 단체를 분명하게 구별해야 여러 가지 카리스마가 증진될 수 있고 다양한 카리스마를 하나의 공동체 안으로 통합할 수 있다.⁴⁷⁾ 레지오 마리아를 비롯한 각 사도직, 신심 단체들의 성장과 더불어 소공동체 운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소공동체와 사도직 단체의 관계는 소공동체의 바탕 위에 사도직 단체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존 단체들과 어떻게 원활하게 협조하면서

45) 칼 라너, 『교회의 미래상』, 정한교 역, 분도출판사, 1987, 34-35쪽.

46) “21세기 한국 교회와 소공동체 운동(5)-소공동체와 레지오”, 가톨릭신문, 2001년 10월 28일자.

47) 유재국, “소공동체를 지향하는 본당 공동체”, 『가톨릭신학과 사상』, Vol.9,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93, 121쪽.

서로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4.1 소공동체에 대한 공감대 형성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소공동체가 미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사목자와 신자들이 공감하는 일이다. 초대 교회 정신으로 돌아가 서로의 삶과 신앙을 나누고 성장시키는 기초가 바로 소공동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새 천년기 한국 교회의 미래상을 소공동체를 중심으로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소공동체에 대해 각기 다른 맥락에서 이해하므로 계속해서 오해와 불신이 생길 수 있다. 미래의 교회상에 대해 서로 공감할 수 없다면 소공동체는 결실을 맺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지향하고 복음의 원천이 지시하는 교회상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교회의 본래 모습이며, 현대 사회 안에서 그러한 이상형은 소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공감대가 하느님 백성 안에 형성되는 일이다.

4.2 평신도의 자발성

신자들의 자발성이 결여된 소공동체는 교계 조직의 하부 구조일 뿐이다. 한국 교회에 있어서 소공동체는 아직 대부분의 경우 사목적 편의를 위하여 구성된 본당의 하부 조직 이상의 의미는 갖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 소공동체가 시작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소공동체가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는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사목자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소공동체의 본질은 평신도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현재 한국 교회의 현실은 사목자가 지시하고 평신도가 따라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사도직 운동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은 평신도들의 각성과 적극적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다. 레지오 마리아가 번성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도 평신도 스스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선교에 나서는 길을 열어 주었기 때문이다. 신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얼마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소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정도도 달라질 것이다. 아직도 신자들은 소공동체보다는 자율성의 폭이 넓은 기존의 사도직 단체에서 활동하길 더 좋아하고 편안하게 생각한다. 소공동체가 활성화 되려면 평신도들이 스스로 “우리가 교회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직무를 실천하는 평신도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하겠다. 소공동체가 교회의 존재(Being)이고 사도직 단체들은 교회 안의 활동(Doing)임을 이해한다면⁴⁸⁾ 소공동체와 사도직 단체 사이의 관계 정립은 쉬워질 것이다.

4.3 권위주의의 청산

21세기 천주교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로서 성직자의 권위주의가 지적된다.⁴⁹⁾ 특히 소공동체에서 성직자의 권위주의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박기주 신부는 사제들의 권위주의가 한국의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오랜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이므로 그 걸림돌을 치우는 일도 하루 아침에 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 그는 권위주의라는 걸림돌을 치우기 위해서는 신자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위임하고, 본당 차원의 의사 결정 과정에 평신도를 참여시켜야 하며, 소공동체를 자주적인 성숙한 공동체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한다.⁵⁰⁾ 사도직 단체와 소공동체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사제의 권위주의는 많은 폐해를 낳는다. 소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제가 독단적으로 레지오 마리아를 해체시키거나 지역으로 재편할 때, 사제와 평신도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교회는 권위적인 위계 질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세상 안에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 주는 표지이다. 사제는 사목자로서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하고 신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다.

4.4 사도직 단체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

앞에서 우리는 한국 천주교회 안에 활성화 되었던 사도직 운동으로 레지오 마리아, 빈첸시오회, 꾸르실료를 살펴보았다. 각 사도직 단체들은 나름의 목적과 영성 및 활동을 가지고 있다. 레지오는 평신도가 주체적으로 선교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하며, 빈첸시오회는 복음의 말씀대로 가난한 이웃 안에서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 중점을 둔다. 꾸르실료는 신앙인들이 하느님을 체험하고 사도직에 투신할 수 있도록 각성시킨다. 그러한 사도직 단체들이 지향하는 바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다.

앞에서 언급한 사도직 단체들의 내용을 단순화시키면 다음의 도표로 나타낼 수 있다.

48) 차동엽, “소공동체와 레지오 마리아의 신학적 자리매김” 참조.

49) 가톨릭 교회에 대한 2002년도 사회 조사 보고서에서 가장 우선적인 해결 과제로 성직자의 권위주의 ((18.8%)가 지적되었고, 이어서 자기중심주의/이익집단화(16.1%), 사회 봉사, 사회 참여 부족(13.5%), 중간층화/부유층화(13%)가 지적되었다. 김재득, 박문수, 박일영 외 공저, 『천주교와 한국 근현대의 사회문화적 변동, 평가와 전망을 위한 전문가 조사 보고서』 한울아카데미, 2003, 87-88쪽.

50) 박기주, “2000년대 복음화와 소공동체”, 108-109쪽.

	주목적	조직	회합	영성	활동
레지오	선교	1. 브레시디움 2. 꾸리아 3. 꼬미시움 4. 레지아 5. 세나투스 6. 끈칠리움 레지오니스	매주 1회	성모님의 깊은 겸손과 온전한 순명, 믿음의 덕을 따름.	입교 권면 예비자 돌봄 교우 돌봄 어려움을 겪는 분 돌봄 레지오 확장 본당 협조 기타 사항
빈첸시오	자선	1. 본당 협의회 2. 지구 이사회 3. 교구 이사회 4. 전국 이사회 5. 총 이사회	매주 1회	가난한 사람 안에 고통 받는 그리스도를 발견 가난한 이웃 안에서 하느님 섬김	환자 방문 극빈자 가정 방문 교도소 재소자 방문 사회 복지 시설 방문 가출 청소년 지도 행려자 무료 급식소 및 단기 이용 시설 등
꾸르실료	교육 개인 성화 교회 쇄신		꾸르실료 (3박4일) 울뜨레아	하느님 사랑을 인식하고 하느님께로 향하는 구체적 응답의 삶으로 초대받음	각자의 현장에서 활동

각 사도직 단체의 활동들은 소공동체가 실천 과정에서 제시하는 일들이기도 하다. 소공동체와 사도직 단체가 추구하는 영성이나 활동들이 현실적으로는 이치럼 서로 겹쳐 있다. 다만 소공동체는 이 모든 사도직 활동을 포함하지만, 각 사도직 단체들은 어느 한 부분을 특화시켜 집중한다. 소공동체는 교회의 존재(Being)이고 사도직 단체들은 교회의 활동(Doing)이라고 할 때 이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소공동체와 사도직 단체들은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라 소공동체라는 큰 틀 안에 사도직 단체라는 활동들이 포함될 수 있는 관계이다. 소공동체는 각 사도직 단체의 활동들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어야 할 것이며 사도직 단체들은 소공동체와 연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빈첸시오회가 그동안 한국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없었는데, 본당의 소공동체들이 빈첸시오회를 뒷받침해 준다면 가난한 이웃에 대한 실천이 훨씬 더 잘 이루어질 것이다. 혹은 꾸르실리스따들이 실천의 장을 소공동체에서 발견하게 된다면 소공동체를 중심으로 사도직 활동의 장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4.5 소공동체의 심화

소공동체는 복음 나누기를 중심으로 가정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지역 사회

안에서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활동을 한다. 그런데 신자들은 지금의 소공동체를 통해 영성의 심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거나 형식적인 활동에 머문다고 지적한다. 현재의 소공동체 교육이나 조직, 기도, 영성, 활동 면에서 신자들의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 복음 나누기는 성서 공부보다 깊이가 낮다고 여기고, 회합은 레지오보다 느슨하고 조직력이 떨어진다고 느끼며, 영성의 깊이도 꾸르실료나 빈첸시오보다 얕다고 생각한다. 즉, 소공동체에 대한 매력이 다른 사도직 단체보다 낮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신자들 스스로 소공동체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나라에 있도록 소공동체가 지향하는 내용이나 방식, 영성적 의미 등이 더욱 심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심화 과정을 기존의 사도직 단체들로부터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꾸르실료가 소공동체 지도자 교육에 도입될 수도 있을 것이고, 빈첸시오의 영성이나 활동이 소공동체의 깊이를 더해줄 수 있으며, 레지오 마리아의 선교 방식은 소공동체의 실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한 방식으로 사도직 단체들과 소공동체는 함께 협력하면서 미래 교회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5. 나가면서

한국 교회 내의 사도직 운동은 1950-60년대에 시작하여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빠르게 성장하였고 한국 교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사도직 단체로서 레지오 마리아와 빈첸시오회, 꾸르실료를 살펴보았다. 평신도 사도직 운동은 한국 초대 교회 신앙의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순교의 열정이 바탕에 깔려 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각 사도직 단체들은 위기를 겪고 있다. 사도직 단체들은 성장 부진의 원인을 그동안 양적 성장에만 치중해 왔고 내적 영성의 심화를 소홀히 하였던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면서 그 해결책도 본래의 사도직 영성을 회복하고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근대화, 도시화, 산업화로 이행되는 한국 사회의 변동과 관계되어 있다.

한국 교회는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지만, 본당의 비대화와 내적 공동화 현상이 생기게 되었다. 한국 교회는 가난, 나눔, 섬김의 삶을 외면하였고, 본당 신축, 신자들의 중산층화, 대화 단절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신자들은 타율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갖게 되고 사목자와 신자들 상호간 대화가 단절되고 인격적 만남이 어려워졌다. 친교에 바탕을 두고 섬김과 나눔을 실천해야 할 교회 본연의 모습으로 자리 잡기 위해 일부 사목자들을 중심으로 소공동체가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리하여 1990년대 이후 한국 천주교회 안에서는 소공동체 담론이 형성되고 소공동체를 지향하는 사목적 실천들이 제안되었다.

그런데 소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사도직 단체들과 마찰이 생겨

났다. 신자들은 사도직 단체에서 활동하길 선호했고 사목자들은 소공동체 사목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공동체 위주로 나아갔다. 그 과정에서 소공동체와 사도직 단체들 간의 갈등이나 대립이 조장되었고 사목자와 신자들 사이의 의견 대립도 있었다.

이 글에서는 소공동체와 사도직 단체들 간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모색해 보았다. 신자들이 소공동체를 또 하나의 사도직 단체로 인식할 경우 그 마찰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소공동체가 복음의 원천에 충실하면서도 현대 사회 안에서 본래 교회상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임을 이해한다면 소공동체와 사도직 단체들 간의 관계 정립은 쉬워질 수 있다. 소공동체는 앞으로 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고 사도직 단체들은 그 틀 안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느님 백성 안에서 소공동체가 21세기 미래 교회상이라는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는 일이다. 그 다음으로 소공동체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요한 일은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들이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왕직, 사제직, 예언직을 이어받아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의 직무에 참여한다. 소공동체의 활성화는 그러한 평신도 사도직을 얼마나 세상 안에서 실천해 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셋째, 한국 교회 내에 만연해 있는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사제들은 봉사자로서 거듭나야 한다. 교회 안의 지도자는 군림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 속에 지도력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각 사도직 단체들의 영성과 특성이 소공동체의 교회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겠다. 사도직 단체와 소공동체는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소공동체라는 큰 틀 안에서 각 사도직 단체들의 특수한 기능이나 카리스마를 펼칠 수 있도록 상호 도와 주는 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자들이 소공동체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나라도 소공동체의 영성을 심화시키고 그 활동을 넓혀나가는 작업들이 병행되어야 하겠다.

소공동체는 교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이다. 소공동체는 미래 교회의 밑그림이다. 소공동체라는 밑그림 위에 각 사도직 단체들이 자신의 고유한 영성을 살리면서 복음화의 결실을 맺게 되길 기대한다.

■■소공동체와 사도직 운동■■의 발제에 대한 논찬

나원균 몬시뇰(서울 대교구)

■■소공동체■■심포지엄에 참가하는 소감

저의 기억으로 지난 1991년 제가 서울 대교구 교육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강우일 주교님과 그 당시 사목국장 신부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서울 대교구의 2000년대를 향한 사목 방향을 논의하던 중 ■■소공동체■■가 복음화의 길임을 확인하였고, 그 후 본당 사목에서 12년 동안 소공동체를 경험하면서 보람과 아쉬움이 많았는데 소공동체의 평가회를 겸한 이번 심포지엄에 참가하게 되어 기쁘고 감회가 남다르게 큼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신 전국의 사목국장 신부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소공동체와 사도직 운동■■에 대한 총평

먼저 위의 제목으로 글을 쓰신 강영옥(루치아)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사목자가 아니면서도 한국 교회의 소공동체와 사도직 운동에 관한 도입 과정을 간결하고 쉽게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공동체와 사도직 단체들과의 관계에서 빛어지는 갈등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왜 이런 문제들이 야기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그 배경과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들의 관계 정립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좋은 방안을 제시하신 것에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강 선생님께서 평신도시라서 실질적인 사목 경험이 없으시기에 두 가지 주제를 다루면서 내용이 이론적이거나 신자의 시각에서만 다루어진 것은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분야의 문제는 다른 사목자들의 발제에서 다루어지므로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 부분적인 논찬

1) 사도직 운동에 관하여

강 선생님이 한국 교회의 복음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사도직 운동 중에 레지오 마리아, 빈첸시오회, 꾸르실료를 선정한 것은 적절했다고 봅니다. 물론 레지오는 다른 그 어느 단체와도 비교될 수 없는 큰 비중임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① 레지오 마리아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신심 단체인 레지오가 선교에 기여한 공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강 선생님도 잘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레지오의 문제점을 다음 6가지로 지적하셨습니다. 1) 개인의 성화 부족 2) 간부들의 자질 및 지도력 부족 3) 사목자들의 관심 부족 4) 소공동체의 마찰 5)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는 활동 6) 단체 조직력의 약화 등.

그러나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부연하고 싶은 문제점은 레지오가 지난 50년 동안■■토착화■■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군대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사회, 한국인의 심성, 한국 교회의 상황을 고려치 않고 교본대로만 실천하여왔기 때문에 특히 사목자들과 마찰을 일으켰고, 레지오 발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②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강 선생님은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를 소개하면서 활동 회원이 6,000명이라고 했는데 숫자상으로 보면 너무 소수라서 굳이 이 단체를 한국 교회의 사도직 대표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가하고 저로서는 의아해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직 운동은 꼭 회원수에 의해서 평가되기보다는 그 단체의 정신과 영성과 실천적 비중이 컸기 때문에 이 단체를 소개한 것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③ 꾸르실료

꾸르실료는 신앙 쇄신 운동으로 개인의 성화와 교회의 쇄신을 위해 10만 명이 넘는 꾸르실리스트들이 한국 교회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강 선생님이 지적한 대로 꾸르실료를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 양성이라는 교육의 장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본질이 왜곡되었다는 사실에 저도 공감합니다.

2) 소공동체

소공동체는 한국 교회의 새로운 교회상으로 교회의 쇄신과 새로운 방향의 사목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각 교구에서는 사목적인 방안으로 ■■소공동체■■

를 도입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3) 소공동체와 사도직 단체들과의 관계 정립

강 선생님은 이 내용에서 소공동체와 사도직 단체간의 마찰과 갈등이 존재한다면서 올바른 관계 정립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하나의 과제라고 적절히 표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안으로 1) 소공동체에 대한 공감대 형성 2) 평신도의 자발성 3) 권위주의 청산 4) 사도직 단체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 5) 소공동체의 심화를 들고 있습니다.

끝으로 각 본당에서는 아직도 많은 신자들이 소공동체와 사도직 단체들에 대한 정체성과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갈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 선생님은 이 문제의 답을 ■■■소공동체는 교회의 존재(Being)이고 사도직 단체들은 교회의 활동(Doing)"이라고 명료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소공동체와 사도직 단체들은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라 소공동체라는 큰 틀 안에 사도직 단체라는 활동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올바르게 지적하셨습니다.

3. 결론 및 제언

① 한국 교회내의 사도직 운동은 교회에 활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1990년대부터는 단체들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내적 영성의 심화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② 1990년부터 한국 교회는 소공동체를 도입하여 복음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기존의 단체들과 마찰이 생겨났고 그러므로 신자와 사목자 간의 의견 대립도 경험해야 했습니다.

③ 소공동체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신자들의 생활 양식이 10년 전과는 크게 달라져서(예: 개인주의 팽배, 여가 활동, 반장 임명의 어려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④ 본당에서는 소공동체의 추진 과정에서 복음 나누기 7단계의 획일적인 방법론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 인식하고, 그 대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⑤ 한국인의 심성과 사회 현상(맞벌이 부부, 이동 인구, 주5일 근무)을 고려한 토착화된 소공동체 모델과 프로그램 개발 등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⑥ 일부 사목자들은 지난 10년간 지속해온 소공동체의 사목 정책에 대해 실증

을 느끼며 새로운 사목 대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새로운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이 소공동체가 본당 공동체의 활성화에 실천적 방안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며 사목적 정책임을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⑦ 각 교구에서는 소공동체를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시키기 위한 소공동체 기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심포지엄을 통해서 소공동체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나누며 앞으로의 사목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하는 시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천주교 소공동체와 영성

김현준 신부(춘천 교구, 죽림동 본당 주임 신부)

I. 들어가는 말

1. 소공동체 영성 개발 필요성
2. 두개의 실마리

II. 소공동체 영성

1. 소공동체란
2. 영성이란
3. 반등 선언과 소공동체 영성
4. 아시파 3차 총회 기조 연설과 소공동체 영성
5. 아시파 3차 총회 최종 선언문과 소공동체 영성

III. 소공동체 영성 심화의 도구인 복음 나누기 및 기도 평가

1. 복음 나누기는 소공동체의 기초
2. 복음 나누기 평가 ①
3. 복음 나누기 평가 ②
4. 복음 나누기 평가 ③

IV. 한국 교회와 한국인의 심성에 맞는 대안적인 영성 심화 도구 제시

1. 주님의 기도
2. 춘천 교구 - 말씀 그림으로 복음 나누기
3. 춘천 교구 - 공동체로 나누는 성독(Lectio Divina)
4. 복음 나누기 4단계(듣, 깨, 결, 기)
5. 말씀 뽑기 - 일용할 양식 만들기
6. 복음 나누기를 가족 기도로
7. 감사와 칭찬 1:3:3 실천
 - 1) 감사와 칭찬으로 누리의 모습을 새롭게
 - 2) 소공동체 영성 심화 덕목으로서의 감사와 칭찬
 - 3) 감사와 칭찬 1:3:3 실천표

V. 나오는 말.

1. 도시에서 먼저 시작하지 마라
2. 꿈을 키워가게 하소서

한국 천주교 소공동체와 영성

I. 들어가는 말

1. 소공동체 영성 개발 필요성

한국 천주교회가 소공동체를 시작한지 10년이 지났다. 1992년 서울 대교구가 ■■소공동체를 통한 복음화■■를 추진해온 이래 한국의 거의 모든 교구가 소공동체를 ■■신자 양성은 물론 복음화의 도구이자, 사랑의 문화에 바탕을 둔 새로운 사회의 출발점■■(교회의 선교 사명 51항)으로 여기고 소공동체 사목을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별히 1차 소공동체 전국모임(2001.6.25-27,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 다오."), 2차 소공동체 전국모임(2002.7.1-13, 정하상 교육관, "자 일어나 가자.")를 통해 소공동체의 확산과 내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확산과 내실은 주교회의 산하 소공동체 소위원회 결성, 소공동체 전국 사목 협의회 결성(전국 사목국장 모임), 소공동체 연구 위원회 결성을 가져오고 아시파 3차 총회(2003.9.2-9.9 한마음 청소년 수련원)를 작년에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번 아시파 3차 총회(AsIPA : Asian Integral Pastoral Approach, 아시아의 통합적 사목 방법을 연구하여 보급하며 아시아 소공동체 담당자들이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아시아 지역의 소공동 활성화에 기여하는 FABC OL 산하 기구)는 가정, 영성, 지도력, 사도직 네 가지 주제로 진행되었고 소공동체의 영성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시파 총회에서 강우일 주교님은 ■■소공동체는 어떤 기술이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하느님의 영으로 활성화 되는 것이므로 그런 근원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소공동체의 활성화의 원동력은 바로 영적인 양식에서 나옵니다. 소공동체 지도자들에게 영성적인 깊이와 역량을 키워 주는 것이 현 단계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공동

체 성공의 관건은 프로그램이나 방법론보다 소공동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공동체 영성의 성화에 있습니다.■■라고 소공동체의 영성을 강조하였다.

2. 두개의 실마리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복음화 위원회가 주최하는 2004년 소공동체 전국모임 및 심포지엄에서 ■■한국 천주교 소공동체와 영성■■이라는 주제의 내용은 ① 소공동체 영성, ② 소공동체 영성 심화 도구인 복음 나누기 및 기도에 대한 평가, ③ 한국 교회와 한국인 심성에 맞는 영성 심화 도구 제시였다. 발표를 부탁 받았을 때 두 가지 걱정을 하였다. 하나는 영성에 대해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공동체 초창기부터 함께 하지 못했고 아시파 흐름도 잘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시골 교구 사제 개인적인 체험과 의견 중심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 교회 오늘의 시대와 공간 상황에 걸맞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었다.

1977년 사제 서품을 받고 지금까지 2개 본당의 보좌와 3개 본당의 주임 신부로 기존 구역반의 조직으로나 구역 반을 소공동체로의 현장 속에 있었다. 특히 첫 본당인 청평(1980년-1985년)에서는 모든 본당에 거의 다 구성되어 있는 레지오 마리아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레지오 마리아(단체)없이 5년간 사목을 하였다. 그때 한 달에 한 번하는 구역장 회의는 한번도 빠짐없이 함께 하였고, 한 달의 한번 구역 모임(7개)에 2년 동안 빠짐없이 참석하며 매달 구역 모임을 중심으로 전 신자들과 함께 재미있고 활기차게 사목했던 경험이 있다.

서울 대교구에서 처음으로 소공동체가 시작되고 다른 교구에 그 소식이 전해지며 확산되어 가던 무렵인 1996년부터 교구청 교육국과 1999년부터 사목국에서 일하면서 교구 차원에서 구역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본당의 중심이 되는 ■■본당 공동체 기본 구성(구조)■■과 좋은 이웃(소공동체) 모임의 길잡이■■좋은 이웃■■을 발간하면서 소공동체의 나무(본당)와 숲(교구)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 두 경험은 이번 걱정을 풀어나가는데 실마리가 되어 주었다.

II. 소공동체 영성

1. 소공동체란

소공동체란 소수의 가정이나 인근 신자들이 기도, 성경 독서, 교회 공부, 그리고 인간적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공동 책임을 도출하는 소수 신자들의 집회를 말하는 것이다(서울 대교구 구역반장 학교 1단계 p.13).

소공동체 운동은 같은 동네, 직장에서 소수의 신자들이 모여서 작은 ■■■신앙 생활 공동체■■■를 이루어 자기의 지역 사회 복음화를 이루고자 하는 운동이다. 소공동체 운동의 목적은 복음화이며 그 전개 방법이 소공동체 운동이다(강윤철, 소공동체 운동 교본).

한국 교회는 괄목할 만한 교세 성장을 이루면서도 성당 자체가 본당의 비대화와 교회의 내적 공동화를 초래하여 복음 정신에 입각한 사귄과 섬김의 공동체 모습에서는 오히려 멀어져 가고 있다. 신자가 1,000명이 넘는 교회에서는 사목자들과 신자들과의 인격적 만남이 매우 어렵고 신자들은 신자들대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상실하여 서로 잘 알지도 못하고 친교를 가지기도 어렵다. 또 어떤 본당들은 교우들이 개인적인 문제와 관심사,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개개인으로 생활하고 있기도 하다(서울 대교구, 구반장 학교 1단계 p.16).

소공동체는 교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새로운 열매로 교회 구조를 개선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추진력이라 할 수 있다. 소공동체의 기본 목표는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하신 하느님 나라를 우리 안에 실현하는 데 있다. 소공동체의 핵심은 복음 정신과 성체 성사의 친교로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는데 있다. 소공동체는 바로 아시아의 미래상이다(최창무 대주교, 아시아 3차 총회 환영사).

소공동체/기초 교회 공동체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믿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들로 살아가도록 신자들을 도와 준다. 그들은 형제적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복음에 따라 살도록 그 구성원들을 도와 주는데 목적을 두며, 결과적으로 사랑의 문화의 새로운 표현인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확고한 출발점인 것이다(아시아 교회 25항, 아시아 3차 총회 최종 선언문 인용).

소공동체의 4가지 요소(특징)는 ① 삶의 현장(집, 직장)에서 함께 모인다. ② 복음 나누기를 한다. ③ 활동을 한다. ④ 보편 교회(본당)와 일치를 이룬다는 것이다.

2. 영성이란

요즘처럼 영성이란 말이 폭넓게 도처에서 쓰이는 때가 없는 것 같다. 자주, 흔하게 쓰지만 올바르게 쓰이는지는 의문이다. 사실, 영성을 제대로 정의하기도 어렵고 한마디로 알아듣기는 더더욱 어렵다.

영성이란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 존재의 본질을 이루는 생명의 원동력이다. 한국 가톨릭 대사전은 영성(靈性, Spritualitas)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느님과 자기 자신, 이웃들,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자기 초월적인 사랑으로 개방되는 한 사람 또는 어느 단체의 믿음이 지닌 살아 있는 표현■■이라고 정의한다.

사실 그리스도교 영성의 원천은 성서에 있다. 성서에서 ■■영■■(靈)의 의미를 살펴보면 구약성서 히브리어 ■■루앗(ruach)■■은 입김, 숨결, 바람을 뜻하고, 신약성서 희랍어 ■■프네우마(πνευμα)■■는 육(肉, caro)과 반대되는 개념이며, 라틴어 스피리투알리따스(spiritualitas)는 육적인 것과 반대되는 영적인 것으로의 개념이다.

영성이란 용어는 5세기경 위(僞)예로니모 서간에 처음 등장하며(■■그대는 영성에 진보하도록 행위하시오■■) 이는 하느님의 영과 연관된 삶의 방식과 일치하며 육체나 물질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였다. 17세기에 영성(스피리투알리따스)은 신심 깊은 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1950년 이래 영성은 교회 안에서 큰 영향력을 갖기 시작하여 신심, 내적 생활, 영성 생활, 영성 신학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영성이란 단어를 일반적으로 정의하면 ■■인간의 정신적 삶의 개화(開化)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교의(敎義) 실천적인 것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가톨릭적 정의로는 ■■완덕에 이르고자 노력하는 삶, 또는 하느님과의 일치의 삶을 신학적(체험적)인 면에서 다루는 말■■,■■인간을 신앙 안에서 충만하게 살게 하는 하느님의 계시와 구원 신비의 전체■■인 것이다.

우리는 소공동체와 관련하여 ■■소공동체 영성을■■, ■■소공동체를 살아 있게 하는 내적 원리■■ 또는 ■■소공동체를 소공동체답게 살리면서 소공동체가 지닌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는 내적 원리■■, ■■소공동체의 내적 원리■■,■■소공동체의 원동력■■을 표현하는 것쯤으로 알아들으면 좋겠다.

3. 반등 선언과 소공동체 영성

1990년 인도 반등에서 열렸던 제5차 아시아 주교회의(FABC) 총회는 아시아 안에서의 교회의, 새로운 존재 양식(a new way of being church in Asia)을 ■
■공동체들의 공동체(Communion of communities)■■라고 규정하였다. 아시아 주교님들이 발표한 반등 선언 요약문에는 소공동체 영성의 근본 요소들이 다 들어있다.

1) 하느님 백성의 형제애

아시아 교회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서로를 형제자매로 여기는 친교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2) 말씀 중심

모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는 그들의 이웃 안에서 그들을 위한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기 위해 토의하고 기도하며 친교를 나누는 것과 같이 하느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데 모여 하나가 된다. 또한 그들의 일상 생활에서 서로서로 도와 준다.

3) 참여하는 교회

성령께서 모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에게 주신 선물과 은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형성하는 것으로 깨닫고 활성화 되는 곳이 ■■참여하는 교회■■이다. 교회는 ■■지금 여기에서■■이루어가는 이웃 사랑 안에서 교회의 선교 사명을 수행한다.

4) 증거하고 복음화 하는 공동체

모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는 다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충실히 증거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 간다. 그들은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과 함께 논의하고 일한다.

5) 이웃 안에서 하느님 나라의 예언적인 표지

모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는 그들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를 변혁하고자 부단히 노력함으로써 세상을 넘어 하느님 나라를 지향하는 예언자적 표징이 된다.

6) 섬기고 함께 하는 지도력

교회 안에서의 지도력은 모든 차원에서 전적으로 비 지배적이고, 종처럼 자신

을 비우신 예수님의 모습이며, 결코 봉사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사람들을 일으키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 주는 것이다.

7) 새로운 영성의 길

①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직의 영성

새로운 방식의 영성은 자신의 삶을 위해 인간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시간과 공간의 모든 차원에서 공동체를 진정한 영성으로 이끌어 주시도록 주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공동체에 존재한다. 이것은 아시아적 상황 안에서 진정한 사도직인 예수님의 공생활을 는 그대로 따르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②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하는 영성

이 공동체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힘없고 무시당하는 이들을 포기, 단순함, 동정, 연대 그리고 하느님과 깊은 일치를 이루는 ■■아나빔(anawim)■■의 정신으로 포용한다. 그들은 능동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정의를 위해 일합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그리스도교 신앙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종교와 문화의 본질적인 요소들이다.

③ 삶과 신앙이 통합된 영성

이 영성은 전례, 기도, 공동체 삶, 가난한 이들과의 연대, 복음화, 교리 교육 대화, 사회 현실 참여 등 그리스도교 생활의 모든 면들을 통합하는 영성이다.

④ 겸손의 영성

이 공동체는 외적 조직이나 힘 그리고 온전히 세속적인 효과로부터 단순함, 하느님께 대한 겸허한 복종 그리고 사랑의 봉사에 중점을 두게 된다.

8) 종교와 인간의 조화를 위해 일하는 공동체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분열과 붕괴의 내적 경향을 벗어나 하느님 아버지와의 깊은 친교와 이웃 사랑 안에서의 통합적인 조화를 이루는 활동에 깊이 참여하여 일하도록 요청 받는다.

이 여덟 가지는 아시아 주교회의(반동)에서 그린 아시아의 새로운 교회상이라 말할 수 있고, 소공동체 사목이 가고자 하는 목표(비전) 즉 교회의 모습, 소공동체의 영성이라 말할 수도 있다. 반동 선언은 아시아 교회가 가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 이를테면 ■■교회의 지금까지의 모습■■과 ■■교회의 앞으로의 모습■

■을 제시하며 소공동체로 사목을 통하여 그 상반된 모습의 불균형을 줄여 나가려 한다. 아래는 그 목록이다.

	지금까지의 모습	앞으로의 모습
1	교회 중심적	그리스도 중심적
2	피라미드 형태	공동 사회 형태
3	서방 교회-서방문화	토착화-토착문화
4	교회건설-성당중심	신자 중심
5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계율	하느님에 대한 사랑-사목
6	개인주의	나눔과 보살핌
7	단체 중심	소공동체 중심
8	기도 중심-신심	성서-하느님의 말씀
9	성직자 전권 행사	공동 책임제
10	개인 구원	공동체 구원
11	의례적인 전례	생활화된 전례
12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음	모든 사람이 구원 가능
13	교권에 따라 유지되는 교회	공동체 신자들의 신앙감각 (sensusfidlium)으로 유지되는 교회
14	성직자 고유 사제직	일반 사제직
15	개선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종처럼 봉사하는 교회)
16	성직자의 교회	참여하는 교회
17	회개하는 교회	자기 쇠신하는 교회
18	결정을 부과	합의
19	성령께서 머리 부분에 임하심	성령께서 뜻하신 곳에 임하심

4. 아시아 3차 총회 기조 연설과 소공동체 영성

아시아 3차 총회는 아시아 각 지역의 소공동체가 공동의 비전과 관심을 가지고 한 자리에 모인 뜻 깊은 행사였다. 또한 아시아 교회의 아시아 비전(반동 선언) 수행에 대한 평가의 장이기도 하였으며, 가정, 영성, 사도직, 지도력, 네 가지 나눔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올란도 퀘베도 대주교님(필리핀 코타바토 교구 교구장)은 아시파 3차 총회 기조 강연에서 ■■소공동체/기초 교회 공동체: 하느님 백성이 힘차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이라는 총회의 주제를 4가지의 소주제로 ① 오늘날 아시아의 소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사목적 과제 ② 소공동체 안에서의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의 양성 ③ 소공동체 안에서의 사도직과 봉사 - 사목적 과제에 대한 응답 ④ 소공동체 영성-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응답으로 나누어 말씀하시며 심오한 영성 안에서의 소공동체 활동을 강조하셨다.

올란도 퀘베도 대주교님은 소공동체가 지녀야 할 영성을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 소공동체 영성은 하느님 말씀에 근거한 영성이다. 또한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교회가 서로 분리 될 수 없는 까닭에, 성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근거를 둔 영성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 그리고 성사에 의해 성장함으로 교회적이어야 하고 공적이어야 한다(그리스도 안에 깊게 뿌리 내린 소공동체 영성은 성사적일뿐만 아니라 교회적이고 공적이다).

- 소공동체 영성은 세상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 중심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하느님 나라의 영성은 아직 오지 않은, 그러나 곧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을 실현하는데 관심이 있다(소공동체 영성은 세상에 아직은 아니지만 곧 다가올 새 하늘 새 땅을 건설하려는 하느님 나라의 영성이다).

- 소공동체 영성은 변화를 가져오는 행동의 영성으로, 소공동체 구성원들로 하여금 특별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연민으로 충만케 하는 그런 영성이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과 일치되는 마음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영성은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의 기초를 이루게 한다(소공동체 영성은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특별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연민으로 충만케 하여 변화를 가져오는 행동의 영성이다).

- 이와 같이 소공동체 영성에는 기도와 행동이 늘 함께 하며 이들은 분리될 수 없다. 기도는 힘을 주고 행동은 기도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소공동체 안에서 영적이고 거룩한 존재가 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올란도 퀘베도 대주교님은 궁극적으로 소공동체 구성원들로 하여금 봉사할 수

있고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영성이며, 소공동체 영성은 이 시대의 가장 긴급한 사목 현안에 대하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나라 소공동체의 응답이며, 그러한 소공동체 영성은 하느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몰입, 세상의 고통에 대한 고뇌, 묵상 기도, 개인의 쇄신과 사회 변혁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적이고 참여적인 행동을 통해서 종교 신앙이 성숙되는 것과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성숙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5. 아시파 3차 총회 최종 선언문과 소공동체 영성

아시파 3차 총회 최종 선언문은 지난 1990년 반둥에서 열린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최종 선언문에서 제3천년기를 향하여 함께 걸어가고 있는 교회의 새로운 존재 방식 안에서의 소공동체/기초 공동체의 영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최종 선언문 2,4).

- 하느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말씀의 중심성).
-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 안에서 신앙을 증거하는 데 있어 소공동체의 예언자적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사회 안에서 신앙을 증거하는 예언자적인 역할).
-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과 복음을 단순함과 겸손함으로 하느님을 깊이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하느님께 대한 깊은 신뢰).
-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는 다른 종교를 통하여 하느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면서 소공동체는 종교간 화합을 이루어 가는데 더욱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이웃 종교들과의 조화).

III. 소공동체 영성 심화 도구인 복음나누기 및 기도 평가

아시파 3차 총회는 복음 나누기가 소공동체 영성과 본당 쇄신의 기초이고, 아시아 안에서의 “교회의 새로운 존재 양식■■■을 이루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전해 준다.

1. 복음 나누기는 소공동체의 기초

아프리카 소공동체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룬코를 창시하고 아시파 창설 초기

부터 함께 해 오고, 서울 대교구가 소공동체를 시작할 때 사제 연수도 맡아 주신 바 있는 남아프리카 움타타 교구의 오스왈드 히르머 주교님은 복음 나누기가 소공동체의 기초이며 교회의 새로운 존재방 식이라고 아시파 3차 총회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셨다.

오스왈드 히르머 주교님은 복음 나누기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서는 하느님 말씀의 선포로써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에 살아 계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공동체에 의존합니다. 교회의 전통은 성서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려 주는 표지라고 말합니다. 성서는 정보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말씀이 선포됨으로써,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현존의 성사적 표지가 됩니다. 말씀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실재는 빵과 포도주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실재와 동일합니다. 성서라는 눈에 보이는 이 표지는 그리스도의 실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공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항상 존중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그들 안에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나타내는 표지가 됩니다.■■또한 복음 나누기의 지침은 ■■우리 자신을 철저히 그리스도 현존 안에 두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음 나누기는 복음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리스도의 현존 안에 머무는 것이고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현존 안에 머물도록 우리를 도와 줍니다. 그러하기에 복음나누기는 소공동체의 기초입니다■■라고 알려 주신다.

2. 복음 나누기 평가 ①

- 아시파 3차 총회의 왜 우리는 복음 나누기를 소공동체 영성의 기초라고 하는가의 질문 안에서 -

- 복음 나누기는 결심과 실천으로 이끌어준다.
- 복음 나누기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깨닫게 된다.
- 복음 나누기는 소공동체의 친교라는 면을 계속 유지시켜 준다.
- 복음 나누기는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의 발전을 가져온다.
- 복음 나누기는 구성원 각자의 목상을 거쳐 표현되기에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안착되며 나아가 우리의 삶과 문화에도 영향을 끼치고 그런 과정 안에서 우리의 그리스도교 신앙을 토착화 할 수 있게 해 준다.
- 복음 나누기는 하느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하느님 자녀로서의 동등함을 드러내 주며,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모두 하느님 나라의 방식 안에서 자신의 고

유한 역할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준다.

3. 복음 나누기 평가 ②

- 소공동체를 이끄는 반장과 구역장들에게 구성원들이 소공동체의 어떤 부분을 제일 어려워하는지 물어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응답이 복음나누기, 즉 성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 시골의 형편은 더욱 그러하다. 그저 함께 모여 묵주 기도 많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묵주 기도 하는 것이 더 거룩한 기도 모임이 아니냐? 괜히 모르는 것 가지고 얘기하고 주눅 들고, 재미없고, 분위기 딱딱하게 만들지 말자고 한다.

- 복음 나누기(7단계)가 우리에게 맞는 것인지? 문제도 있는 것 같다. 관찰·평가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의견도 있다.

4. 복음 나누기 평가 ③

- 복음을 나누며 사는 것, 하느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평소 생활을 하느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내 인생을 나의 것,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이루어나가는 것이 당연하고, 내 인생의 책임도 내가 진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일 것이다 (강우일 주교).

- 복음 나누기(7단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선 인간의 어려움이다■■■회개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정월기 신부).

- 복음 나누기가 어려운 것은 1-2번에 다 익혀서 잘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복음 나누기(묵상 기도)도 수행을 통해서 가능하다. 실제로 비슷한 조건의 2개의 소공동체가 있는데 매주 모임하는 공동체의 할머니와 한달에 한번 모임 하는 공동체의 할머니의 복음 나누기 정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미사 때의 독서도 연습 없이, 한두 번 해봄으로 잘 할 수 없듯이 말이다.

- 초대 교회 시대의 기도는 성서 봉독, 주의 기도, 감사제(성찬례, 미사)였다고

한다. 성서 봉독이 곧 기도 생활이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목주 신공, 성모 신공, 성체 조배 등의 기도는 훗날에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성서 봉독은 기도나 삶이 아니라 공부라고만 생각한다. 성서를 읽고, 쓰고, 외우고, 묵상을 나누는 것이 모두 공부라는 이름으로 공부의 영역에 자리 잡고 있다. 사실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좋아하기보다 필요해서 또는 억지로 하는 편이 아닐까? 기도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부보다 기도를 좋아하는 것 같다. 빌고, 빈만큼의 대가를 받는 기복 신앙이 우리의 심성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9일 기도, 54일 기도, 목주 기도 500만 단 하기 등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사실 성서 한 줄을 읽는 것도, 외우는 것도, 쓰는 것도 기도이고 이것이 삶이 되어야 한다. 공부는 사는 것 보다 깨닫는 것이 우선이고 사는 것은 나중이다. 성서 공부라는 말보다 성서 기도, 성서적 삶이라는 말이 더 넓게 우리 안에 사용될 때 복음 나누기는 더 깊게 자리 잡게 될 것이다.

- 따라서 복음 나누기 안에서 성서 읽기(듣기)가 묵상 나눔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그 자체로 기도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미사에서도 독서(읽기)는 말씀의 선포이며 바로 듣기이다. 이런 면에서 복음 나누기 7단계는 단계적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다.

IV. 한국 교회와 한국인의 심성에 맞는 대안적인 영성 심화 도구 제시

인도 트리반드룸 교구 수자 파키암 주교님은 아시파 3차 총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사목 방문 시, 몇 해 전에 남편을 따라 입교하였다는 어떤 여성 신자에게 가톨릭 교회에 들어오니 어떤 점이 좋으냐고 물었더니, 사제들이 입는 제의, 성가, 전례, 각종 행사 등을 열거하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덧붙여 말하기를, 마음의 평화, 즉 하느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려면 절을 찾는다고 말하더라는 것이다.■■이 끔찍한 일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는 것이고,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 주님의 기도

오스왈드 히르머 주교님은 아시파3차 총회에서 소공동체 내실화 방안으로 영

성 심화 기도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하셨는데 그 중에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묵상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주님의 기도는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며, 초대 교회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기도이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이다.

1)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기도문을 짧게 나누어 여러 차례 반복 묵상토록 하는 단순한 방법으로 사제나 지도자가 먼저 하면서 천천히 따라 하라고 할 수도 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

아주 천천히 여러 번 반복하도록 한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

2) 또 다른 방법은 각자에게 쪽지를 나누어 주어 주님의 기도를 각자 한 구절씩 적어 넣도록 한 후 한사람씩 자기 기도 구절을 다섯 번에서 열 번까지 반복하면서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 구절과 함께 자기가 청원하는

내용을 덧붙여 함께 바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복음 나누기 3단계에서 주님과 더불어 있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열 번씩 반복하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느님께서 우리들 한 가운데에 계심을 느끼게 된다.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를 열 번하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도록■■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된다.

3) 주님의 기도를 심도 있게 바치는 또 다른 방법이다. 이 방법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사목 활동(신앙생활)과 관련 마음 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나누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의 예를 들어 보자. 아래 내용은 오스왈드 히르머 주교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저의 마음에 떠오른 생각(사목 생활)을 나누어 본 것이다. 신자들도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자신들의 삶을 기도 속에 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저는 주님의 기도 첫 마디를 할 때마다 2000년 대희년 6월 25일 강원도 철원군 월정리에서 가졌던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행사를 하면서 걱정하던 생각이 난다. 6월 중순은 언제나 장마권에 들어가는데 군사 분계선 철조망을 바라보고 허허벌판에서 밤을 세운 1박 2일동안, 거짓말같이 부근에는 비가 왔어도 행사장에는 비가 오지 않았던, 그 하늘을 보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의 배려에 찬미와 감사드렸다. 아! 어찌 그 체험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아버지, 저희 교구는 이번 여름이 지나는 9월 17일 사제 서품식이 있습니다. 저희 교구 역사상 2번째로 6명의 부제가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느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제 서품을 받습니다. 이 6명의 부제 중에 제가 처음으로 신학교에 추천서를 쓴 도미니꼬 부제도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누구보다도 우직할 정도로 성실히 신학교 생활을 해 왔기에 앞으로도 성실한 사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품 받는 날 부제에게 줄 기도문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 춘천 교구 - 말씀 그림으로 복음 나누기

■■말씀 그림으로 복음 나누기■■는 시골 교구인 춘천 교구 신자들이 특히 노인 신자들도 복음에 맞들이고 주님과 그리고 함께 하는 구성원들과의 친교를 나누도록 준비한 것이다. 이를 테면 춘천 교구의 주교좌 본당인, 제가 봉직하고 있는 죽림동 본당의 경우 총 신자수 1,568명중 60세 이상이 500여명인 경우와 같은 본당이 허다하기에, 이분들은 복음 나누기를 꽤나 어려워하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이다.

말씀 그림으로 복음 나누기는 그 달의 주일 복음을 따라 가면서 묵상하며 준비한 ■■말씀 그림■■을 색칠하는 방법이다. 그 방법은 아래와 같다.

- ① 성서 본문을 한 사람이 소리 내어 천천히 2번 읽는다.
- ② 잠시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묵상)

이 복음의 내용이 오늘 내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묵상한다.

③ 말씀 그림을 정성껏 색칠한다.

④ 성서 본문을 한 번 더 읽는다.

말씀 그림을 색칠하면서 얻은 느낌이나 묵상한 성서 구절을 ■■말씀 그림■
■하단에 한두 줄 적는다.

⑤ 말씀 그림 느낌(묵상) 나누기

말씀 그림을 색칠하면서 느낀 점이나 묵상한 내용을 짧게 나눈다.

⑥ 서로를 위한 기도를 한다.(손잡고)

3. 춘천 교구 - 공동체로 나누는 성독

성서를 천천히 관상하면서 기도하는 성독(聖讀, Lectio Divina)은 아주 오래된 성서기도 방법이다. 이 고대로부터의 수행은 그리스도교 수도 전통 안에서 유지되어 왔으며 베네딕도 수도회 수사들과 제3회원들의 소중한 유산 가운데 하나였다. ■■공동체로 나누는 성독■■의 방법은 아래와 같다.

⌘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들려온 말씀/littera, 문자적 의미)

1. 한 사람이 성서 본문을 소리 내어 찬찬히 두 번 읽는다.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 듣는다.

2. 1~2분 침묵. 각자 마음에 와 닿은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된다.

3. 나누기 : 각자 마음에 와 닿은 단어나 구절만을 소리 내어 두어 번 되풀이 하며 서로 들려 준다. 다른 말은 보태지 않는다.

⌘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무엇을 들려 주시는가(깨달은 속뜻/sensus, 신앙적 의미)

1. 다른 사람이 같은 성서 본문을 차분히 읽는다.

2. 2~3분 동안 침묵한다. ■■■이 성서 내용이 오늘 내 삶의 어느 부분에 와 닿는가?■■■에 대해 묵상한다.

3. 나누기 : 간단하게 ■■■저는 ...을 들었습니다, 저는 ...을 보았습니다.■■■하는 식으로 짤막하게 나눈다.

⌘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무엇을 바라시는가(응답 기원/oratio, 윤리적 의미)

1. 또 다른 사람이 같은 대목을 세 번째로 읽는다.

2. 2~3분 동안 침묵한다. ■■■하느님께서 오늘, 이번 주에 내가 ...을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하여 묵상한다.

3. 나누기 : 간단하게 ■■■저는 ...을 결심했습니다.■■■하는 식으로 각자 묵상한 바에 대하여 나눈다.(특별히 자기 오른쪽에 앉은 사람의 나누기에 마음을 기울인다.

*서로를 위한 기도와 복음 나누기 정리와 기록

1. 나누기가 다 끝나면, 서로를(특히 오른쪽 사람을) 위하여 잠시 기도한다. 다 같이 ■■■아멘■■■으로 나누기를 맺는다. 영광송으로 마무리 한다.

2. 길잡이 뒷부분에 있는 복음 나누기 정리와 기록란을 이용해 지난주의 결심 실천을 반성하며 마무리 한다.

복음 나누기 정리와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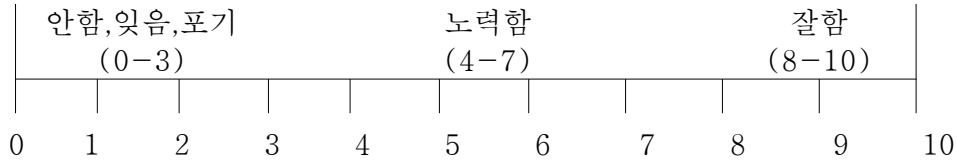
주일(월 일)/ 복음 :

◇ 내 마음에 와 닿은 단어나 구절(들려온 말씀) :

◇ 들려 온 말씀과 내 삶의 묵상(깨달은 속뜻) :

◇ 오늘(이번 주) 내가 하기로 한 결심(응답 기원) :

◇ 지난번(주) 나의 결심 실천에 대한 반성(실천한 정도에 따라 숫자에 0표하시오)



4. 복음 나누기 4단계(듣기, 깨닫기, 결심하기, 기도하기)

묵상 기도는 정해진 기도문을 외우지 않고 내심에서 자유로운 형태로 하느님과 대화, 친교를 나누며 자기 심정을 자유로이 표현하는 기도이다. 묵상 기도의 네 가지 근본 구조는 독서, 성찰, 감동적 대화, 결심이다. 복음 나누기 4단계는 이 묵상 기도의 4가지 근본 구조를 이용한 것이다. 이 복음 나누기 4단계는 성서 읽기(듣기), 쓰기, 외우기, 깨닫기(묵상) 등이 바로 그 자체로 기도임을 강조한다.

Ⅹ 듣기: 들려온 말씀

1. 성서 본문 읽기- 듣기
 2. 말씀 새기기: 각자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을 여러 번 되뇌며 새기며 외운다(1-2분).
 3. 나누기: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을 두어 번 되풀이하며 서로 들려 준다(다른 말은 보태지 않는다).
- *제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은 ■■ ■■입니다.(2번)

Ⅱ 깨닫기 : 깨달은 속뜻

1. 성서 본문 읽기- 듣기
 2. 말씀 깨닫기 : 내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을 자신의 생활에 적용 시켜 반성한다. 즉 말씀이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고, 자신의 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묵상한다(2-3분).
 3. 나누기 : 반성하고 깨달은 내용을 나눈다.
- * 제 마음에 와 닿은 말씀 ■■ ■■ 묵상을 통하여 ■■ ■■을 깨달았습니다.

Ⅲ 결심하기 : 응답 결심

1. 성서 본문 읽기 - 듣기
 2. 결심하기 : 하느님께서 오늘, 이번 주에 내가 어떤 결심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결심한다(2-3분).
 3. 나누기 : 결심한 바를 나눈다.
- *저는 오늘(이번 주) 하기를 결심했습니다.

Ⅳ 기도하기 : 감동적인 대화

1. 성서 본문 읽기- 듣기
 2. 기도하기: 듣고, 깨닫고, 결심한 내용을 가지고 마음을 움직이고 감정을 일으켜 하느님과 대화한다(2-3분).
 3. 나누기(손잡고 함께): 옆 사람과 손을 잡고 옆 사람(오른쪽)을 위해 기도한다.
- * 복음 나누기 정리와 기록을 한다.
4. 말씀 뽑기- 일용할 양식.

소공동체 모임에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으로 말씀을 뽑는 것이다. 한두 구절의 성서말씀을 예쁘게 쓰고 사랑처럼 만들어(말씀 사탕) 구성원들이 뽑아 한 주간을 살아갈 양식으로 받아서 한 주간을 그 말씀에 비추어 어떻게 살았는지 나눔 하는 것이다. 준비는 본당 구역반장들이, 성서 공부 팀이 준비하면 될

것이다.

6. 복음 나누기를 가족 기도로

(소공동체의 영성이 가정의 영성으로 살아나야)

소공동체에서 하는 복음 나누기가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가정 기도(가족 기도)로 자리 잡아야 한다. 우리 한국 교회의 열심한 신자(단체신자)들이 단체의 의무 기도(예> 레지오의 까떼나와 목주 기도, 꾸르실료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그 개인 기도를 한만큼 오히려 가족 기도가 줄어들어가는 현상이다. 마치 외식으로 잘 먹은 어머니가 가족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주기보다 가족들도 바깥에서 해결하고 들어왔으면 하는 심리 현상처럼 나 개인은 많이 기도했기에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

2002년부터 일년에 3-4회 실시해 온 가족 피정에서 ■■말씀 그림으로 복음 나누기■■,■■성독■■을 가족 기도로 사용하였을 때 높은 호응과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었다. 가정의 바탕 없이 소공동체가 잘 될 수 없듯이 가족기도 없이 소공동체 영성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없을 것이다. 사실 가족 기도가 사라진 것과 냉담 자가 늘고 주일미사 참여자가 줄어든 현상과는 관계가 깊을 것이다.

7. 감사와 칭찬 1·3·3 실천

1) 감사와 칭찬으로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러시아의 위대한 소설가이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사상가이며 사회 개혁가였던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세 가지 질문」(1903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일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네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보좌 신부 때 본당에서 여름 신앙 학교 때 ■■푸른 우체통■■놀이를 해 보았다. 2박 3일을 함께 지내는 동안 내 주위에서 착한 일을 하는 친구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적어서 푸른 우체통에 넣는 프로그램이었다. 이름이 많이 적혀져 나오는 어린이가 큰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착한 일을 하는 친구를 많이 적어낸 어린이에게 더 큰 상을 주면서 친구의 착한 면

을 볼 줄 아는 어린이가 더 훌륭하다고 말했다.

본당에서 감동을 받는 때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어느 때, 성당에 들어갔다가 성체조배 하는 뒷모습이나, 말없이 혼자 성당 청소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아름다움이 가슴 뭉클하게 다가온다.

성령 강림은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누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는 날이다. ■
■감사와 칭찬 1:3:3실천■은 성령 강림의 뜻을 본당(소공동체) 안에서 실천해 보는 것이다. 하루 세 번(세 명) 감사와 칭찬으로 나의 이웃, 내 곁의 사람들을 고맙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나도 새롭게 되고 누리도 새롭게 하려는 것이다. 사실 우리네는 감사에 인색하고 칭찬에 어색해 하지만 누구나 감사와 칭찬(친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2) 소공동체 영성 심화 실천으로서의 감사와 칭찬

아시파 3차 총회 선언문은 소공동체 영성을 말씀의 중심성, 사회 안에서 신앙을 증거하는 예언자적 역할, 하느님께 대한 깊은 신뢰, 이웃 종교들과의 조화로 정리하였다.

성 이레네오 주교는 ■■감사는 부활의 보증입니다.■■,■■주님의 말씀으로 감사의 기도를 바칠 때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몸과 피인 감사제가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며 감사가 매일 새로 나는(부활)의 보증이 됨을 깨우쳐 주신다(성무일도, 부활 제3주간 목요일 독서).

감사는 하느님께 대한 깊은 신뢰가 없으면 말할 수 없다. 아버지를 갑작스런 사고로 잃고 무덤에서 ■■저는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9년 동안 그토록 좋은 아빠를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라는 기도는 하느님께 대한 깊은 신뢰의 표현이며 신앙을 증거하는 예언자적 말씀으로 들려온다. 하느님께 감사뿐 아니라 이웃에의 감사도 깊은 신뢰의 표현이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감사 기도를 잘 할줄 모르고 친절하지도 않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청원의 기도는 많이 하지만 감사 기도는 자주 하지 못한다. 하느님께 감사와 자기 분수를 아는 염치, 이웃에 대한 칭찬(친절)과 배려는 소공동체 영성을 심화시키는 실천덕목이 될 수 있다. 아래는 그런 상관관계를 목록화 해 본 것이고 뒤에 나오는 ■■꿈을 키워 가게 하소서■■는 기도문으로 만든 것이다.

소공동체의 특징(요소)	소공동체의 영성(아시파의 3차 총회)
삶의 현장에서 모인다.	말씀의 중심성.
복음 나누기를 한다.	사회 안에서 예언자적 역할
활동을 함께 한다.	하느님께 대한 깊은 신뢰
보편 교회와 일치한다.	이웃 종교들과의 조화

3) 감사와 칭찬 1.3.3 실천표

소공동체의 기초(바탕)	공동체의 (중심)	소공동체영성 심화 실천 덕목	소공동체 교육(양성)
그리스도(말씀)	말씀 공동체	감사, 염치, 칭찬(친절), 배려	말씀은 우리에게 누구이신가 (창조론, 구원론)
이웃(함께)	이웃 공동체		이웃은 우리에게 누구인가 (교회론, 인간관)
사명(선교)	사명 공동체	헌신, 봉사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선교론, 세계관)

V. 나오는 말

1. 도시에서 먼저 시작하지 마라.

신자 수 443만 명이 넘는 한국 천주교회는 14개 교구(군종교구까지 포함하면 1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현실적으로 3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① 대신학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신자 수 430만 명, 본당 수 100개, 사제 수 200명 이상인 7개 교구: 서울, 수원, 대구,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교구

② 대신학교는 없지만 신자 수 10만 명, 본당 수 50개, 사제 수 100명 이상인 3개 교구: 전주, 마산, 청주 교구

③ 대신학교도 없고 신자 수 10만, 본당 수 50개, 사제 수 100명 미만인 4개 교구: 춘천, 원주, 제주, 안동 교구

어떻게 보면 소공동체의 시작과 내실도 대략 이런 순서처럼 보인다.

필리핀 교회의 소공동체 10계명 중에 ■■도시에서 시작하지 마라■■는 문항이 있다고 한다. 이 의미는 도시에서의 시작을 잘못하면 도시가 갖는 특성들 때문에 역기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 일 것이다.

소공동체는 비록 오늘의 형태는 아닐지라도 초대 교회부터 있어 왔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시작을 교회 설립 초기 박해 시대의 우리 선조들의 삶, 즉 공소(생활)에서부터 라고 말할 수 있다. 공소는 우리나라 소공동체의 뿌리이며 우리나라 시골의 대명사이다.

그런데 공소가 거의 없는 서울 대교구(140만 신자, 250개 본당, 12개 공소)에서 ■■소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소공동체를 도시적 입장에서 설명한다. ■■본당의 비대화■■,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작은 신앙 생활 공동체■■, ■■신자 수 1,000명이 넘는 교회에서는 사목자들과 신자들의 인격적 만남이 어렵고■■(p.2 소공동체란 참조)등의 설명은 소공동체의 기본 목표, 기초적인 내적 원리 시각에서 보다 도시 교회의 형편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어 우리 본당도 신자 수 한번 1,000명이 넘어 봤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지닌 대다수의 시골 교구, 본당, 공소 신자들이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지 않아도 기존의 구역·반 모임이 ■■반만 모여도 좋은 모임 ■■, ■■

반쪽(女)만 모이는 모임 ■■으로 인식되었는데 소수, 작은 모임 등으로 사람 수와 크고 작음의 크기로 설명되는 소공체의 명칭은 서울 대교구에 공소가 없어 그 원체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그런 면에서 ■■소공동체라는 용어가 소공동체 운동을 이해하는데 걸림돌 ■■이라는 전원 신부의 말에 공감의 간다. 내용적이고 소공동체 영성이 담긴 이름으로의 모색과 함께 구역장, 반장이라는 명칭도 옛날 구역·반 틀에서 벗어나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노력도 함께 해 봄이 좋을 것 같다. 물론 ■■기존 구역·반 조직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소공동체가 뿌리내리기에 더 없이 적합한 배경을 지니고 있다■■는 아시과 3차 총회 총괄 책임자 코라 마태오씨의 시각도 있지만 말이다.

최창무 대주교님의 ■■소공동체의 핵심은 복음 정신과 성체성사의 친교로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는데 있습니다. 소공동체 안에서 신자들은 하느님 말씀, 특히 성체 성사에 의해 성장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힘을 얻습니다.■■는 말처럼 소공동체에서 말씀과 성체의 수호자인 사제들의 더 적극적인 역할과 영성을 위하여 구역 미사, 반 미사를 적극 권장함도 필요할 것이다.

2. 꿈을 키워 가게 하소서.

사랑이신 주님,
감사와 찬미 드리오며 마음 드높여 기도합니다.

주님을 따르려는 저희들이
다른 무엇이 아닌 말씀과 성체 안에서
자신의 어려움과 슬픔을 승화시키고
소외받는 이들과 손발을 나누고
고통 받는 이들과 마음을 나누며
자신을 태워 빛을 발하는 촛불 되어
이 세상을 비추는 꿈을 키워 가게 하소서.

주님을 닮으려는 저희들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양보하는 배려와
말을 일을 끝까지 완성하는 열정과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용기와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다고 알아듣는 염치와

용서하고 용서받을 줄 아는 겸허한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저희들의 꿈을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의논하고 봉사하는

소공동체 안에서 키워 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한국 천주교 소공동체와 영성’에 대한 논찬

박기주 신부(서울 대교구, 서초동 본당 주임신부)

김현준 신부님께서 이번 AsIPA 3차 총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소공동체의 영성 부분을 잘 발표해주셨고 또한 춘천 교구에서 복음 나누기의 한 방법으로 실행한 바 있는 말씀 그림 복음 나누기의 방법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아 교회가 소공동체를 시작한지는 15년, 한국 교회는 10년 이상이 됩니다. 소공동체를 시작할 때 각 나라마다 그랬듯이, 한국 교회에서도 소공동체를 왜 하는지, 소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소공동체가 무언인가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AsIPA 3차 총회에서 드러났듯이 소공동체의 영성이 참가한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로 대두되었다는 것은 소공동체가 뿌리를 내리면서 이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을 제기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AsIPA 3차 총회 중 소공동체를 한국 교회에서 제일 처음 시작한 강우일 주교님께서 이 부분을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소공동체는 어떤 기술이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다"

"소공동체의 원동력은 바로 영적인 양식에서 나온다."

이 영적 양식에 대해 필리핀 코타바토 교구장이신 퀘베도 대주교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1. 소공동체 영성은 하느님 말씀에 근거한 영성이다.
2. 소공동체 영성은 하느님 나라 즉,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을 실현하는 데 있다(세상과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하느님께 중심을 두고 있다).
3. 소공동체의 영성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과의 일치를 이루며 가난한 사람이 교회의 기초를 이룬다.

AsIPA 3차 총회 최종 선언문에서도 소공동체의 영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1. 하느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말씀 중심).
2. 정치, 경제, 사회 생활 안에서 신앙을 증거하는 데 예언자적 역할을 다 해야 한다.

3. 가난한 이들과의 일치룰 이루기 위해선 하느님께 대한 깊은 신뢰가 필요하다.

따라서 3차 총회에서 각 나라 대표들은 복음 나누기가 소공동체의 영성과 본당 쇄신의 기초가 되고 교회의 새로운 존재 양식을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깊이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이 복음 나누기의 영성에 대해 아시아 교회에 소공동체를 알려 준 오스왈드 히르며 주교님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셨습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실재입니다. 말씀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현존은 빵과 포도주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현존과 동일합니다. 복음 나누기의 지침은 우리 자신을 철저히 그리스도의 현존 안에 두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하는 것이다.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현존 안에 머물도록 도와준다. 그러기에 복음 나누기는 소공동체의 기초입니다."

‘교회의 새로운 길과 새 지도력’에 대한 논찬

윤일순 수녀(거룩한 말씀의 회)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의 현실에서 새로운 지도력은 교회와 개인을 살리는 시대의 요구이다. 이런 절심함에서 좋은 논문을 발표해 주신 신부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본 논문은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제5차 총회의 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상보적으로 이해하고자 제안하고 있다. 제가 이해한 바대로 강윤철 신부님의 논문의 요지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교회론과 사회 구조에 대한 성찰 안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하느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그리스도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성령의 성전으로서의 교회를 제시하고 있다. 오늘의 사회의 구조는 정보 사회, 그물망 사회, 의사소통의 사회로, 이에 이루어야 할 사회 제도로는 통합적 속성, 평등한 인간 관계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방식의 모색이다. 여기에 요구되는 교회의 지도력으로는 참가와 공동 책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탈권위주의적이고 평등한 인간 관계 속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하는 지도력이다.

2. 교회의 새로운 길에서 소공동체는 작은 신앙 생활 공동체이며 현장 교회이다. 이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운동’이며, 소공동체 생활을 통해 자기와 세상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고자 하는 ‘복음화 운동’으로 모든 신자들이 참여하는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교회를 이루고자 한다. 또한 참여하는 교회로 그리스도와 친교와 사명에 참여하고, 공동책임의 동료 일꾼으로, 평신도의 본질과 사명 안에서 참여로 함께 성장할 수 있다. 버려야 할 교회의 모습으로 지배적이고 독단적인 지도력, 수동적이고 수혜자의 자세, 신자들이 개별적으로 있는 모습, 신자들이 사제의 단순한 협력자라는 인식 그리고 일부 신자만 참여하는 것이다.

3. 새로운 양식의 지도력에서 아시아에서 제시하는 용기와 영감과 힘을 주고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지도력으로 안내하는 지도력에서 지도자는 안내자이며 촉진자여야 한다. 활기를 주는 지도력으로 지배하려 하지 않고, 함께 일하고, 공동체 전체가 선교사들을 파견하고, 지도자를 지적하는 일이 허용된 초대 교회의 모습이다. 섬김/봉사로써 이해되는 지도력이다. 참여시키는 지도력으로 함께 하는 지도자로 성직자와 일반 신자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공동 책임을 지는 지도력이다.

4. 새로운 지도력의 시도들로 기초 공동체의 추대로 사목 협의회 구성은 사목

회장을 사목 협의회 총회에서 선출하거나 본당 신부가 지명하여 임명하고, 회장이 회장단을 구성하고, 각 위원장을 추천하여 인준 받고, 위원장이 같이 일할 위원들을 구성한다. 이렇게 하여 소공동체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사목회를 구성함으로써 사목회와 소공동체가 긴밀히 연결된다. 가정 교리 운영으로 교회 활동에 참여 의식을 높이고, 신앙 생활 교육이 되고, 소속감과 유대감을 갖게 되고, 냉담자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5. 새로운 지도력의 시도들로 지도력의 나눔과 분산으로 지도력과 업무 나눔, 결정 기능 분산과 권한 나눔, 그리고 일인 일 직책 갖기이다. 참여의 장과 위원회 강화로 자기 소공동체에 우선적 참여, 사목회 각 위원회별 활동의 강화 그리고 평신도 예비 신자 교리 교사에 깊이 참여하고, 소공동체와 구역 안에서 직책을 나누어 일을 분담하여야 한다.

그래서 저는 신부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논리 즉 오랜 전통 안에서 교회는 지배적이고, 통치적이며, 먹여 주는 지도자에서 사람들을 촉진하고, 안내하는 지도력으로 활기를 주고, 사람들을 공동체와 봉사직에 많이 참여케 하는 섬김의 지도력으로 변화되어야 함에 대해서도 많이 공감하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시각에 대하여 의문점도 있기에 몇 가지 질문도 드리고 저의 소견도 덧붙여 보고자 한다.

1) 사제에 대해 지도자라는 말은 일반적 의미의 지도자와는 다른 표현이 아닐까? 또 달라야 되지 않을까?

발제자의 글 각주 1)에서 사제의 지도자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도날드 메서⁵¹⁾에 의하면, 예언적인 주제에서 본다면, 사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에서의 지도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독재자도, 카리스마적인 인물도, 공상가도 그리고 완전한 인간의 모범도 아니다. 그의 역할은 파생된 것, 즉 보다 높은 실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가능케 하는 자’로서도 그는 자기 자신도 이보다 높은 실재에 의해 능력을 부여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부정에도 불구하고 사제는 지도자이다. 그렇지만 그의 지도력이 세상 사람들이 설명하는 식의 그런 지도력이 아니다. 우리가 예배 의식에서 사제의 지도력의 이런 독특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제단에 선 사제

51) Donald E. Messer, Contemporary of Christian Ministry, Abingdon press, 1990, in Chapter vi.

의 이렇듯 역설적인 관계 안에서이다. 다시 말하면 그의 지도력은 자기 회중에게 어떻게 그들이 전 생애를 통해 하느님께 말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요즘 교회의 현실에서 사제의 지도력은 남이 어떤 일을 하도록 가능케 하는 사람(enabler)이나, 공급자(equipper) 그리고 갈등 관리자(conflict manager)로 자리매김을 해 오고 있다. 주된 역할로서의 촉진자, 가능케 하는 자, 그리고 갈등 관리자의 효과는 모든 통일적이고, 활력에 찬 비전을 희생하는 대가로 부드럽고 잠정적인 평화를 이루려는 경향이 있다. 가능케 하는 자 그리고 갈등 관리자의 역할은 사목자로부터 어떤 예언자적 입력을 약화시킨다. 갈등 관리자는 논쟁적인 견해를 가지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은 교회에 평화와 통일성을 가져다줄지 모르지만, 지도자로서의 사목자의 소명은 교인들의 삶에 파트너로서 참여하는 것 이외에도 비전을 제시하고,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지시하고, 필요한 권위를 행사하는 것에서, 사제는 일반적 지도자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2) 섬기는 교회에서 종된 지도력이어야 되지 않을까?

발제문 207, 208 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 지도력을 위한 세 가지 제안으로 이는 섬김의 지도력에서 나온다고 했다. 그리스찬 역사의 대부분을 통하여 나타난 지배적인 교회상은 섬기는 기구로서 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기대하는 기구로서의 교회였다. 교회 구조들 그것이 웅장한 유럽의 성당들이든 혹은 아담한 하얀 건물이든 종종 그 자체가 목적인 양 여겨져 왔다. 사람들과 돈이 교회 안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은 거의 없었다. 교회가 구원에 필수적인 성사를 베푸는 자로 혹은 지역 사회의 도덕이나 관습을 위한 기준을 정하는 권력자로 간주될 때, 성직자 지배의 포로가 되는 일이 종종 있어 왔으며, 이 권위주의적 스타일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옥죄어 왔다. 교회가 위신과 사회적 지위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때, 우리 교회는 주도적으로, 교인은 현 옷가지들을 말없이 자발적으로 수집하고 수선하여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나 학대당하는 아이들과 배우자들을 돕고 보호하는 일에 헌신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은행의 총재나 대기업의 이사와 다를 바 없다.

교황 요한 23세가 불러일으킨 위대한 혁명 중의 하나는 종된 교회가 되는 것에 대한 가톨릭 내에서의 새로운 자기 이해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발표된 '현대 세계에서 사목 현장'의 문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교회도 전체 인류의 형제 자매됨을 촉진시키는 일을 통하여 이 세상을

섬기도록 노력해야만 하는 것을 분명한 어조로 가르쳐 준다. 공의회는 이러한 이해는 섬기는 교회에서 종된 지도자(Servant leadership)로서의 교회의 이해이다. 첫째 종된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사도직 안에서 하나의 지위가 아니라 인류에 대한 봉사로서 이해한다. 교회 안에서 사제, 주교, 학교 총장과 같은 직책으로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런 전문화된 직책에 부름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종들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이다(Servus Servorum Dei). 즉 진정한 돌봄과 헌신에 기초한 참된 관계성을 수립하는 자이다. 예를 들면 종된 지도자는 지위에 대한 염려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하느님과 인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둘째는 종된 지도자는 근본적으로 권위는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섬김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힘이란 선거나 임명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더욱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랑 넘치는 섬김에 의해 얻어진다. 셋째 종된 지도자는 모든 인간의 삶은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고 진리는 종종 역설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기에 모든 인간적 조건에 공감할 줄 안다. 그들은 선부른 비난이나 거절의 정신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의 정신을 갖고 사람들에게 접근한다. 그들은 죄가 아니라 죄인을 사랑한다. 파괴된 인간적 상황에 대해 공감하는 시각을 갖는다. 넷째는 종된 지도자는 단순한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길을 여는 개척자가 되는 것이다. 개척자는 얽히고설킨 쟁점들을 분류하고 그 반응을 조직화 하고 차이점을 풀어갈 줄 아는 문제 해결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개척자는 평범한 문제 해결자 그 이상이다. 개척자는 교회의 미래가 어떤 모양을 가져야 할 것인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가, 조직이나 기구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들이 필요한가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비전을 준다. 또한 교황님께서 “하느님의 종들의 종”으로 자기를 이해한 점에서도 섬기는 교회에서 종된 지도력이어야 한다는 면에서 저의 입장과 다른 것 같다.

3) 지도력은 파트너십이어야 하지 않을까?

발제자의 요구되는 지도력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제시하는 ‘참가와 공동 책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도력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도력의 나눔의 형태로 결정 기능 분산과 권한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일인 일 직책 갖기를 권하고 있다.

소공동체는 하느님 안에서 보이는 이웃과의 친교적 관계를 맺어 나간다. 이런 의미에서 지도력은 파트너십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파트너십⁵²⁾이라는 말은 코

52) L.M. Russell, The Future of Partnership, Westminster Press, 1979. p.28

이노니아(Koinonia)라는 말로 표현되는 말이다. 또한 이 말은 Koinonos(동반자, partner)와 Koinoneo(참여하다, to take part)가 있다. 이들은 koinos(공통적, common)에서 나온 말이다. 신약 성서에서는 흔히 누구와 무엇인가를 나눈다는 의미로 쓰인다. 어떤 상호 관련적 관계로 형성된 공동체 안에서 공동적 결합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이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고, 쌍방적 관계, 주고받는 상호 참여의 관계를 지니는 그런 의미이다. 이것은 또한 어느 한쪽만이 주체가 되고 다른 한쪽은 대상이 되거나 종속적 관계에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주체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의식하는 것이며, 자신이 선택하고 행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한다. 파트너의 주체성을 긍정하고 뒷받침해 주는 덕목으로는 성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섬김(servanthood)이라는 것이 있다. 남을 섬긴다는 이 말은 "diakonia"(봉사)라는 말에 관련된 말로서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과제를 자기 자신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이런 개념은 어떤 공동의 과제를 함께 풀어 나간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공동의 과제를 같이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서로 파트너십으로서 그 일에 참여하는 관계를 나타낸다. 공동의 과제란 하느님의 선교 과업(Missio Dei)이다. 하느님의 선교는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하느님께서 인류와 함께 하신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불 때 공의회에서 말하고 있는 친교와 공동 책임은 파트너십 안에서만이 가능한 지도력일 것이라 생각된다.

4) 여성의 리더십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발제자가 언급했듯이 전통적으로 지도력은 통제적이고 지배적인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다. 관계성 안에서 불 때 교회는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발제문 안에서도 신부님께서서는 교회를 보고, 사회의 구조를 보셨다. 예를 들면 사회를 올바르게 알아야 교회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사회의 빠른 움직임에 교회의 감지와 그에 대한 대응 안에서 불 때 지도력은 상호 의존적이다. 일반적으로 불 때 이러한 직관적 인식은 여성이 탁월하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교회 구성원의 60%이상이 여성인데 여성 리더십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

끝으로 좋은 공부의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린다.